



NABO 산업동향 & 이슈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CONTENTS

산업 동향

산업 이슈 |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국내 현황 분석

naboo



산업동향 & 이슈

총괄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조정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작성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김윤희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양희열	행정실무관
	이아라	자료분석연구원

- 「NABO 산업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 (☎ 02-6788-378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산업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산업동향 & 이슈

C O N T E N T S

I 산업생산

1. 전산업	08
2. 제조업	12
3. 서비스업	23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30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39
3. 가공단계별 수출	40

III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44
2. 비철금속	52
3. 곡물	55

IV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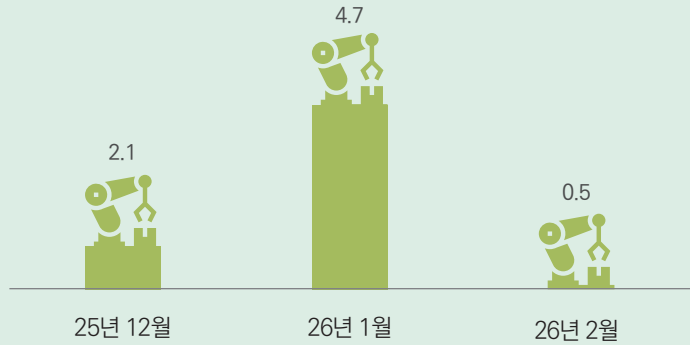
1. 배출권거래	56
2. 재활용가능자원	59

V 산업 이슈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국내 현황 분석	6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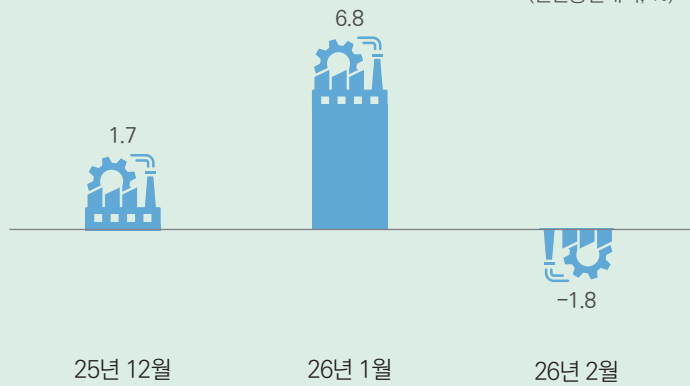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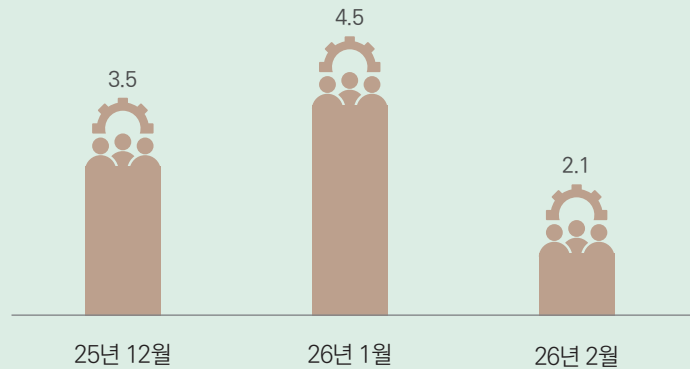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산업동향 & 이슈 종합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서비스업 수요 증가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하방요인이 증가

2월 제조업 생산은 설 명절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줄어든 반면, 2월과 3월 수출은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SSD 수요 급증 등으로 호조를 보임

- (전산업 생산) 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5%, 전월대비 2.5%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2월) 2.1 → ('26.1월) 4.7 → (2월) 0.5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12월) 1.2 → ('26.1월) -0.9 → (2월) 2.5

- (제조업 생산) 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전월대비 6.1%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2월) 1.7 → ('26.1월) 6.8 → (2월) -1.8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12월) 2.0 → ('26.1월) -2.8 → (2월) 6.1

- (서비스업 생산)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 전월대비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2월) 3.5 → ('26.1월) 4.5 → (2월) 2.1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12월) 0.8 → ('26.1월) -0.2 → (2월) 0.5

- (건설업 생산) 2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 전월대비 19.5% 증가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5.12월) -6.4 → ('26.1월) -7.1 → (2월) 1.2
- 건설업(전월대비, %): ('25.12월) 4.5 → ('26.1월) -7.8 → (2월) 19.5

- (수출) 3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703.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5.0%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1월) 524.7 → (2월) 546.5 → (3월) 703.2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1월) 37.0 → (2월) 36.4 → (3월) 55.0

- (에너지 및 원자재) 3월 「에너지」, 「비철금속」, 「곡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에너지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10.3 → (2월) -6.8 → (3월) 37.7
- 비철금속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30.2 → (2월) 23.8 → (3월) 23.0
- 곡물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3.0 → (2월) -0.3 → (3월) 5.1

- (환경) 2월 「지표배출권(KAU25)」 증가는 전월대비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 KAU25 증가(원/톤): ('25.12월) 10,400 → ('26.1월) 12,400 → (2월) 13,750
- KAU25 거래량(천톤): ('25.12월) 8,049 → ('26.1월) 3,813 → (2월) 3,472

주요 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원/달러,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1Q	2Q	3Q	4Q	12월	1월	2월	3월
전산업생산	1.6	1.1	0.3	1.0	3.6	-0.2	2.1	4.7	0.5	-
제조업생산	4.3	3.0	2.8	3.5	8.1	-1.9	1.7	6.8	-1.8	-
서비스업생산	1.3	2.0	0.9	1.6	3.2	2.3	3.5	4.5	2.1	-
소매판매액	-1.9	0.3	-0.8 (0.6)	-0.1 (-0.6)	1.6 (1.2)	0.9 (0.6)	1.2 (0.6)	0.7 (2.9)	4.7 (0.0)	-
설비투자지수	3.0	1.2	5.4 (-2.2)	5.5 (0.3)	1.2 (0.6)	-6.2 (-3.8)	-12.2 (-4.1)	13.8 (5.3)	5.3 (13.5)	-
건설기성액	-4.6	-16.5	-21.1 (-7.2)	-17.3 (-2.6)	-11.9 (-0.8)	-15.1 (-4.1)	-6.4 (4.5)	-7.1 (-7.8)	1.2 (19.5)	-
수출(통관)	8.1	3.8	-2.3	2.1	6.5	8.4	13.3	33.8	28.7	48.3
13대 산업	10.4	3.3	-3.3	0.9	6.1	8.9	13.7	37.0	36.4	55.0
수입(통관)	-1.7	0.02	-1.3	-1.7	1.6	1.4	4.6	11.6	7.5	13.2
경상수지(억달러)	999.7	1230.5	194.9	283.9	360.1	391.7	187.0	132.6	231.9	-
소비자물가	2.3	2.1	2.1	2.1	2.0	2.4	2.3	2.0	2.0	2.2
취업자수 증감(천명)	160	193	155	207	217	195	168	108	234	206
실업률	2.8	2.8	3.4	2.8	2.2	2.9	4.1	4.1	3.4	3.0
원/달러환율	1,364	1,422	1,473	1,350	1,403	1,439	1,439	1,440	1,440	1,530
국고채금리(3년)	3.11	2.57	2.59	2.39	2.45	2.84	3.01	3.04	3.17	3.38

주: 1.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
 3.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I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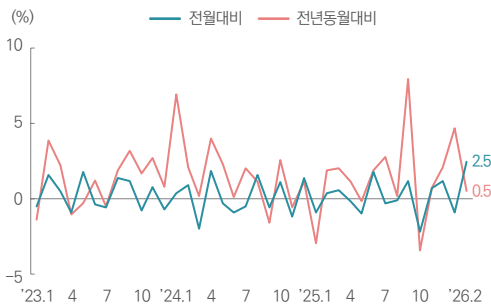
1

전산업

■ 2026년 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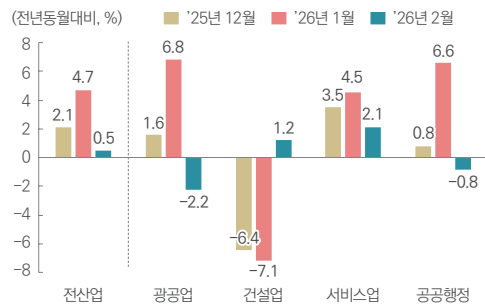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5%, 전월대비 2.5%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2월) 2.1 → ('26.1월) 4.7 → (2월) 0.5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12월) 1.2 → ('26.1월) -0.9 → (2월) 2.5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2.1%), 건설업(1.2%)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2.2%), 공공행정(-0.8%)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19.5%), 광공업(5.4%), 서비스업(0.5%)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공공행정(-4.6%)은 감소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2026년 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반도체(27.1%), 석유(5.4%), 철강(2.1%), 무선통신기기(1.8%)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가전(-35.6%), 자동차(-19.3%), 컴퓨터·주변장치(-18.3%), 섬유(-14.8%), 조선(-7.7%), 일반기계(-9.4%), 화학(-2.2%) 등이 줄며 1.8%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2월) 1.7 → ('26.1월) 6.8 → (2월) -1.8

- 전월대비: 가전(-13.3%), 섬유(-3.9%), 석유(-2.2%), 일반기계(-1.5%), 자동차(-1.4%) 등의 생산은 줄었으나, 반도체(28.2%), 무선통신기기(18.5%), 조선(10.9%), 컴퓨터·주변장치(8.5%), 철강(1.2%), 화학(0.9%) 등의 생산이 늘며 6.1% 증가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12월) 2.0 → ('26.1월) -2.8 → (2월) 6.1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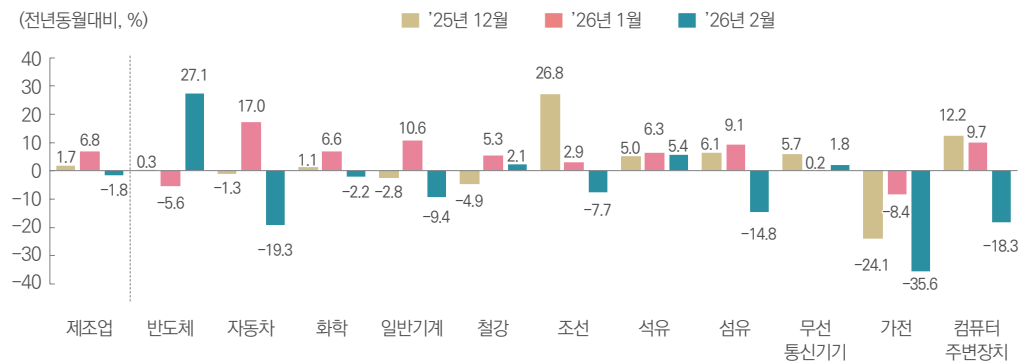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2026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22.3	103.7	105.7	124.4	110.8	103.8	6.1
제조업	5.4	-4.1	6.6	1.7	6.8	-1.8	
반도체	13.8	16.8	4.9	0.3	-5.6	27.1	28.2
자동차	1.8	-13.4	16.1	-1.3	17.0	-19.3	-1.4
화학	2.4	-4.8	3.4	1.1	6.6	-2.2	0.9
일반기계	1.0	-7.6	5.6	-2.8	10.6	-9.4	-1.5
철강	-0.4	-9.8	-7.6	-4.9	5.3	2.1	1.2
조선	34.9	12.5	35.6	26.8	2.9	-7.7	10.9
석유	-2.2	-3.5	-4.5	5.0	6.3	5.4	-2.2
섬유	3.2	-6.6	9.7	6.1	9.1	-14.8	-3.9
무선 통신기기	12.4	6.7	15.4	5.7	0.2	1.8	18.5
가전	9.2	-19.7	-3.2	-24.1	-8.4	-35.6	-13.3
컴퓨터 주변장치	-2.3	-35.3	-9.8	12.2	9.7	-18.3	8.5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그림 3 | 제조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26년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정보통신업(-3.7%), 숙박 및 음식점업(-1.1%), 부동산업(-1.1%)은 줄었으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6.0%), 금융·보험업(5.3%), 도소매업(1.6%), 운수창고업(1.5%) 등이 늘어 2.1%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12월) 3.5 → ('26.1월) 4.5 → (2월) 2.1
- 전월대비: 정보통신업(-5.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3%), 숙박·음식점업(-1.0%) 등은 줄었으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2%), 도소매업(2.7%), 금융·보험업(1.5%), 운수 창고업(0.9%), 부동산업(0.2%) 등이 늘며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12월) 0.8 → ('26.1월) -0.2 → (2월) 0.5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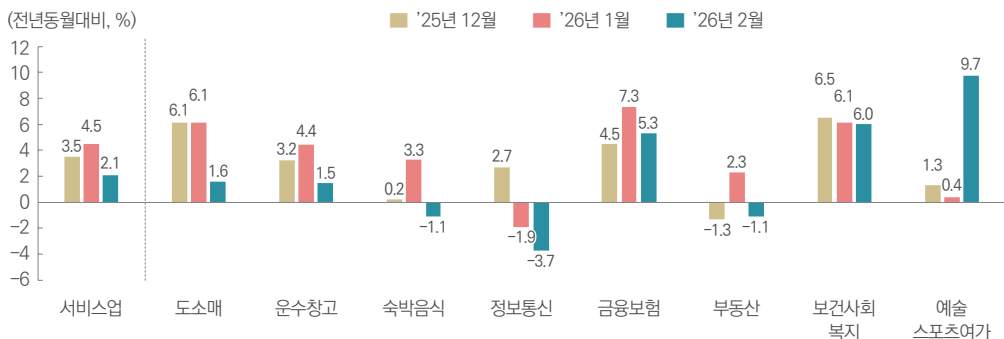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2026			전월대비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서비스업(원지수)	132.2	113.3	112.1	136.8	118.4	114.5	0.5
서비스업	0.9	-0.4	1.6	3.5	4.5	2.1	
도매 및 소매업	-1.2	-3.3	3.1	6.1	6.1	1.6	2.7
운수 및 창고업	7.7	3.9	5.8	3.2	4.4	1.5	0.9
숙박 및 음식점업	-2.7	-3.3	-3.0	0.2	3.3	-1.1	-1.0
정보통신업	-3.1	4.9	0.6	2.7	-1.9	-3.7	-5.7
금융 및 보험업	2.4	0.1	3.5	4.5	7.3	5.3	1.5
부동산업	0.5	-3.3	0.8	-1.3	2.3	-1.1	0.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	5.7	2.5	6.5	6.1	6.0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9	0.7	-9.6	1.3	0.4	9.7	5.2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 서비스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터, 「서비스업동향조사」

■ 2026년 2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2024년 5월부터 연속해서 감소하다 22개월 만에 증가(1.2%) 전환하였는데, 부문별로는 건축(-1.8%)은 감소하였으나 토목(10.1%)은 증가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5.12월) -6.4 → ('26.1월) -7.1 → (2월) 1.2
 - 건축(전년동월대비, %): ('25.12월) -5.3 → ('26.1월) -9.7 → (2월) -1.8
 - 토목(전년동월대비, %): ('25.12월) -8.8 → ('26.1월) 1.4 → (2월) 10.1
- 전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증가(19.5%)하였고, 부문별로는 건축(17.1%)과 토목(25.7%)이 모두 증가
 - 건설업(전월대비, %): ('25.12월) 4.5 → ('26.1월) -7.8 → (2월) 19.5
 - 건축(전월대비, %): ('25.12월) 6.4 → ('26.1월) -11.8 → (2월) 17.1
 - 토목(전월대비, %): ('25.12월) -0.7 → ('26.1월) 4.5 → (2월)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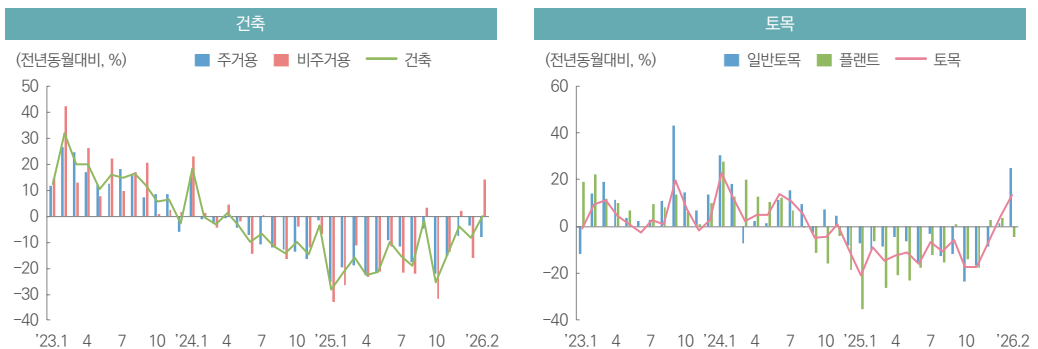
| 표 3 | 건설업 생산(불변)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2026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전월대비
건설업(생산액)	13.3	8.5	8.4	12.5	7.9	8.5	19.5
건설업	-7.1	-27.3	-19.7	-6.4	-7.1	1.2	
건축	-4.8	-28.8	-22.5	-5.3	-9.7	-1.8	17.1
토목	-11.8	-22.2	-9.9	-8.8	1.4	10.1	25.7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5 | 공종별 건설업 기성액(경상) 추이



주: 1. 건축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성되고, 토목은 일반토목, 플랜트, 전기기계, 조경공사로 구성되나, 전기기계, 조경공사는 토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를 제외함
 2. 세부 공정에 대한 건설기성액은 불변기준으로 공표되지 않으므로 경상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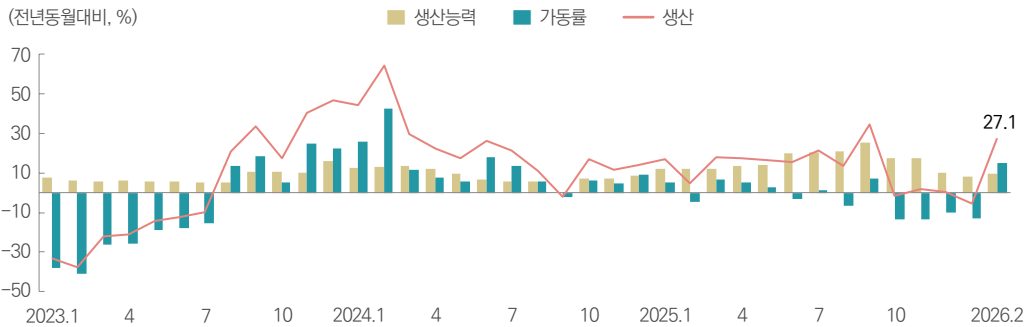
제조업

■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 2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7.1%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3 → ('26.1월) -5.6 → (2월) 27.1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9.8 → ('26.1월) -12.8 → (2월) 15.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0.2 → ('26.1월) 8.1 → (2월) 9.4

| 그림 6 | 반도체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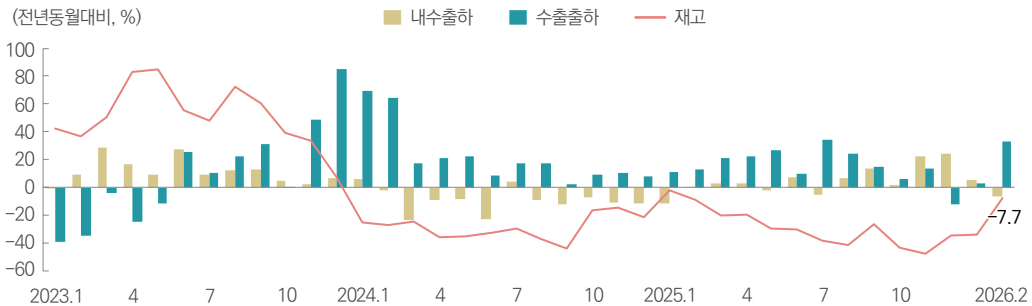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반도체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7.7%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34.5 → ('26.1월) -33.9 → (2월) -7.7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4.5 → ('26.1월) 5.3 → (2월) -6.2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2.3 → ('26.1월) 2.8 → (2월) 33.0

| 그림 7 | 반도체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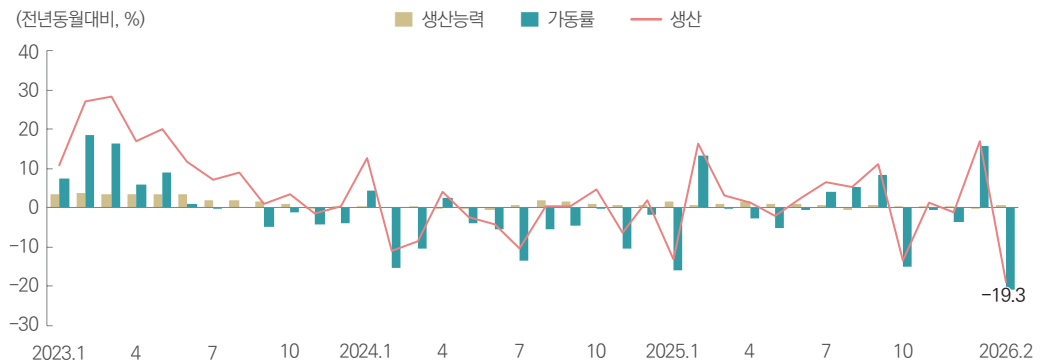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자동차: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2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3%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3 → ('26.1월) 17.0 → (2월) -19.3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3.8 → ('26.1월) 15.6 → (2월) -21.0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1 → ('26.1월) -0.4 → (2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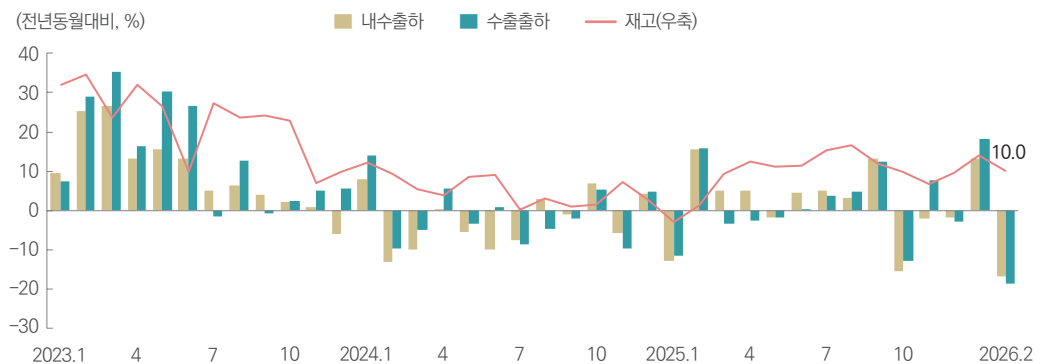
| 그림 8 | 자동차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자동차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9.5 → ('26.1월) 14.0 → (2월) 10.0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7 → ('26.1월) 13.2 → (2월) -16.7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8 → ('26.1월) 18.1 → (2월)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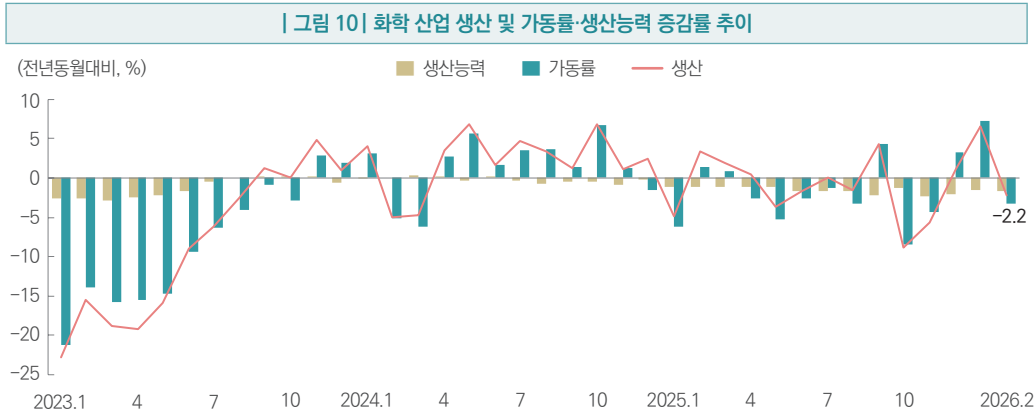
| 그림 9 | 자동차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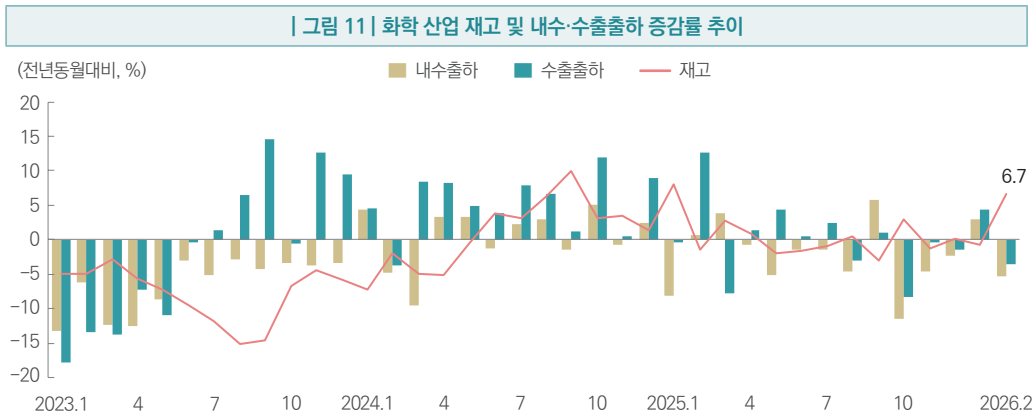
■ 화학: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2월 화학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1 → ('26.1월) 6.6 → (2월) -2.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3.3 → ('26.1월) 7.3 → (2월) -3.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1 → ('26.1월) -1.5 → (2월) -1.6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화학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6.7%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1 → ('26.1월) -0.7 → (2월) 6.7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4 → ('26.1월) 3.0 → (2월) -5.4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5 → ('26.1월) 4.4 → (2월)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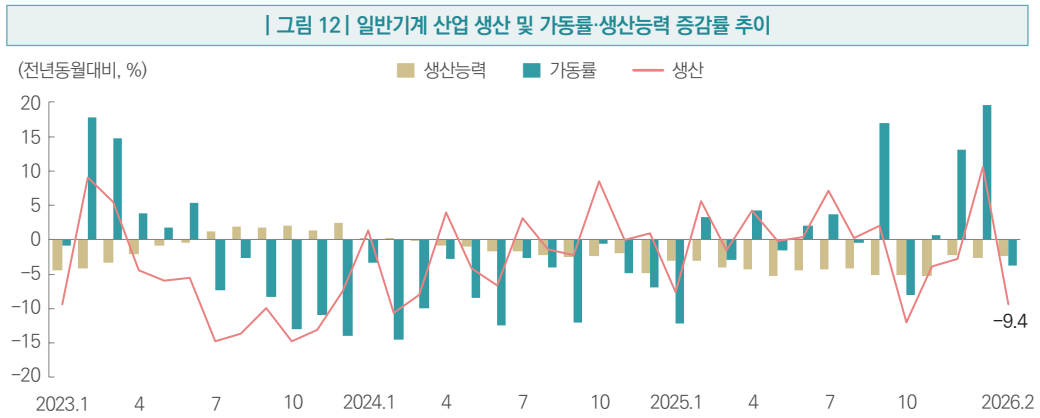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일반기계: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2월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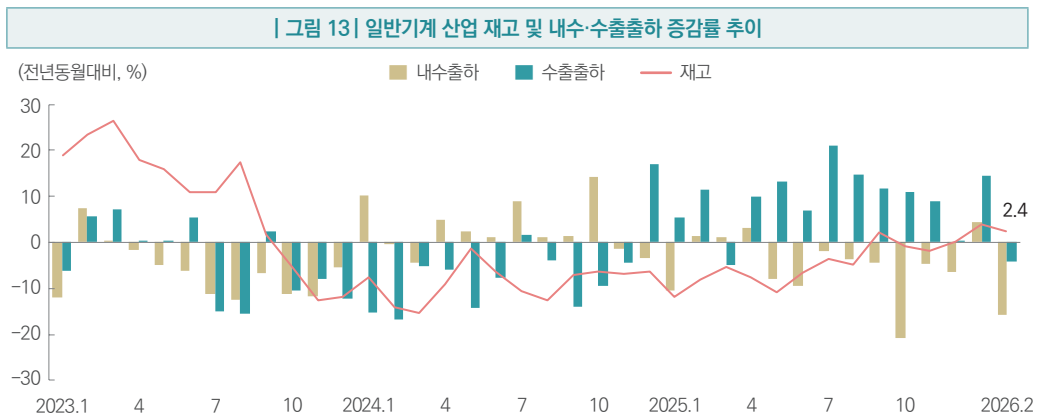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8 → ('26.1월) 10.6 → (2월) -9.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3.1 → ('26.1월) 19.6 → (2월) -3.8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2 → ('26.1월) -2.7 → (2월) -2.4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일반기계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0 → ('26.1월) 3.9 → (2월) 2.4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6.3 → ('26.1월) 4.3 → (2월) -15.6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4 → ('26.1월) 14.4 → (2월)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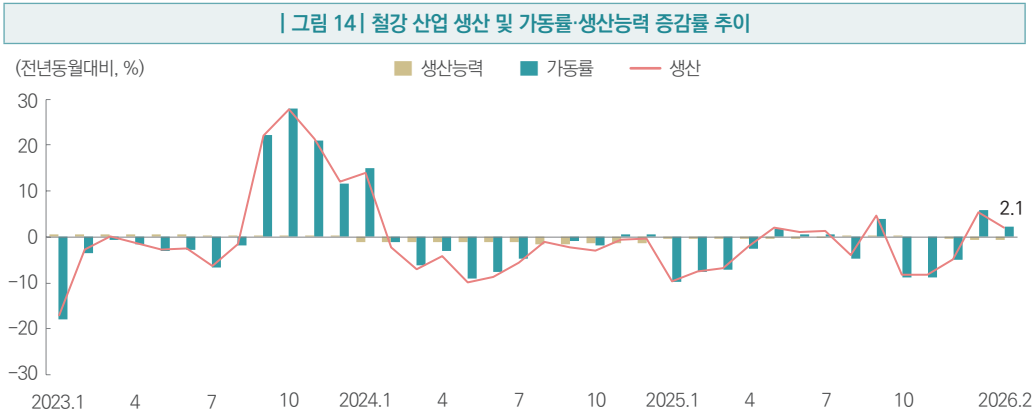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철강: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 2월 철강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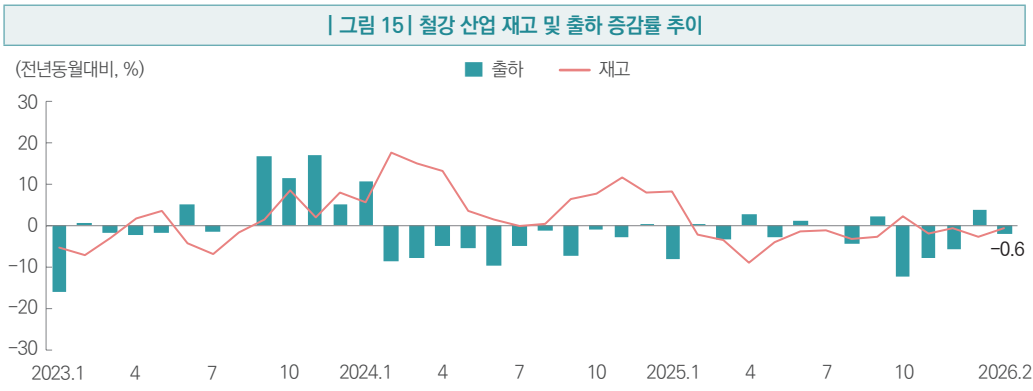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4.9 → ('26.1월) 5.3 → (2월) 2.1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5.0 → ('26.1월) 5.8 → (2월) 2.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5 → ('26.1월) -0.7 → (2월) -0.7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철강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7 → ('26.1월) -2.8 → (2월) -0.6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5.6 → ('26.1월) 3.8 → (2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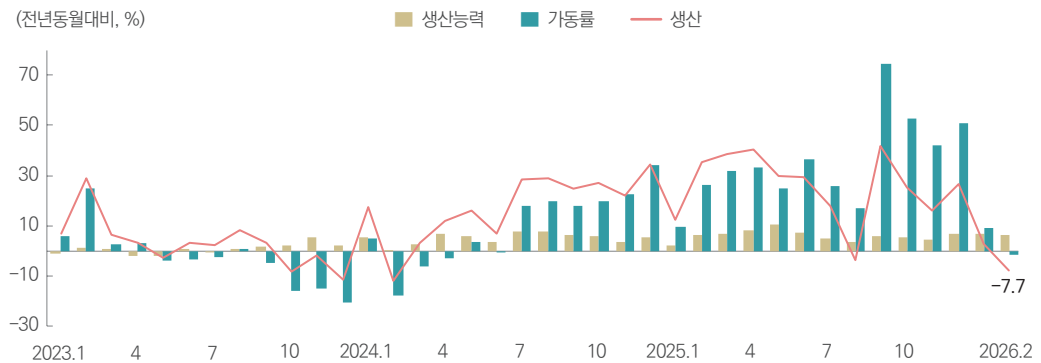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조선: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과 「출하」가 모두 감소

• 2월 조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7%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6.8 → ('26.1월) 2.9 → (2월) -7.7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50.7 → ('26.1월) 9.4 → (2월) -1.6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6.8 → ('26.1월) 6.9 → (2월) 6.6

| 그림 16 | 조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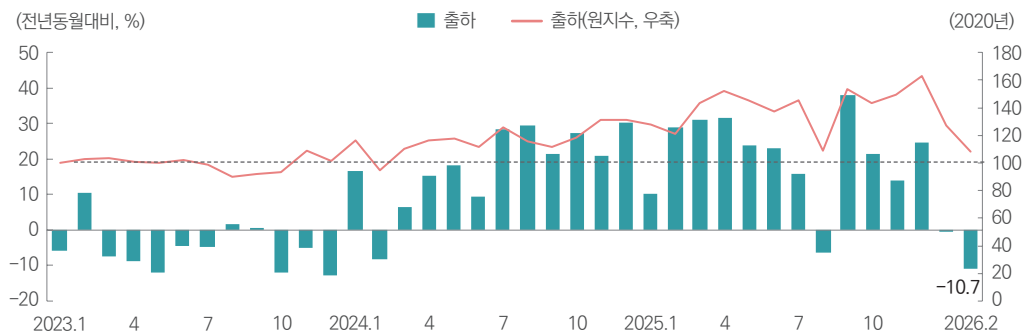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조선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4.5 → ('26.1월) -0.5 → (2월) -10.7
- 출하(2020년=100): ('25.12월) 163.3 → ('26.1월) 127.1 → (2월) 108.0

| 그림 17 | 조선 산업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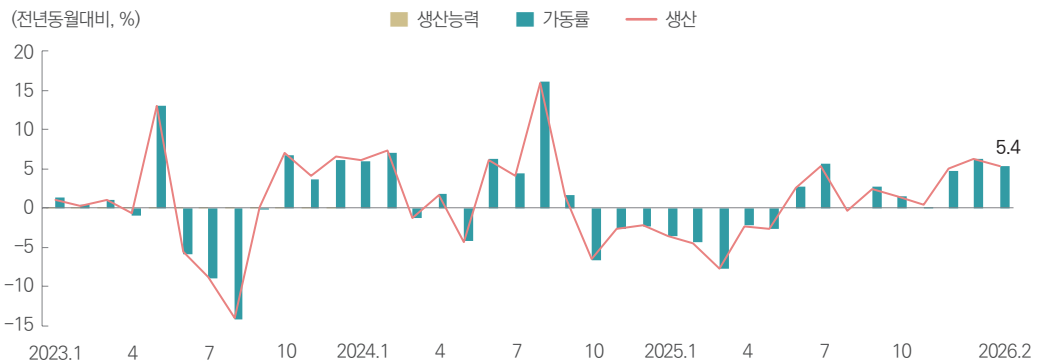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석유: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 2월 석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5.0 → ('26.1월) 6.3 → (2월) 5.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4.8 → ('26.1월) 6.3 → (2월) 5.4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0 → ('26.1월) 0.0 → (2월) 0.0

| 그림 18 | 석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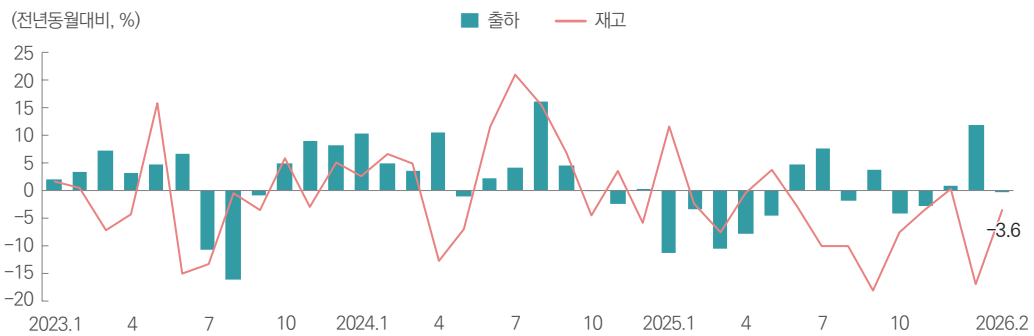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석유 산업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2 → ('26.1월) -17.1 → (2월) -3.6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9 → ('26.1월) 11.8 → (2월)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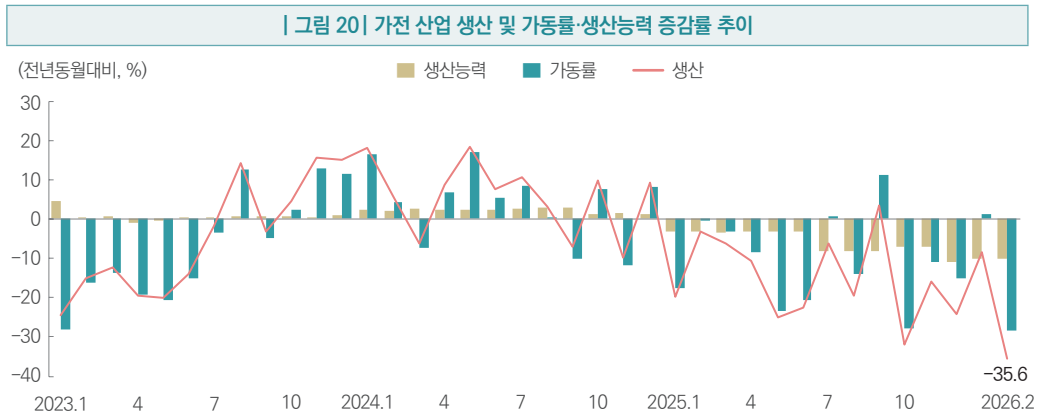
| 그림 19 | 석유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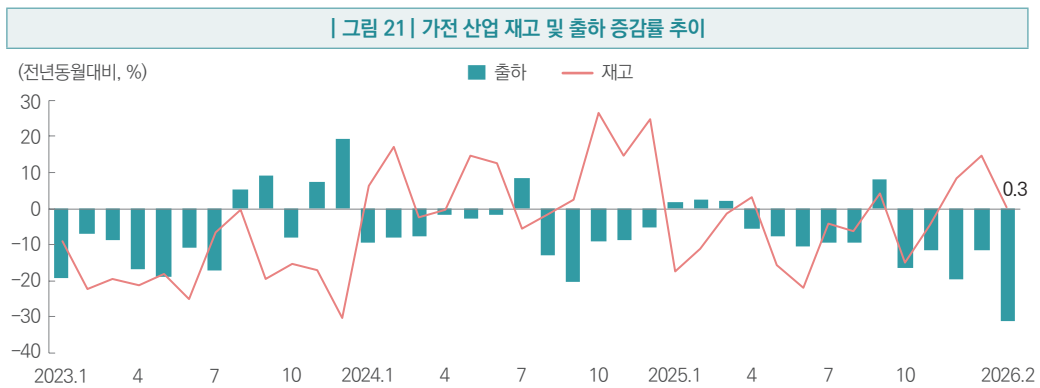
■ 가전: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2월 가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5.6%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4.1 → ('26.1월) -8.4 → (2월) -35.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5.2 → ('26.1월) 1.2 → (2월) -28.4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1.0 → ('26.1월) -10.2 → (2월) -10.1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가전 재고는 출하 감소에도 생산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8.4 → ('26.1월) 14.7 → (2월) 0.3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9.5 → ('26.1월) -11.7 → (2월)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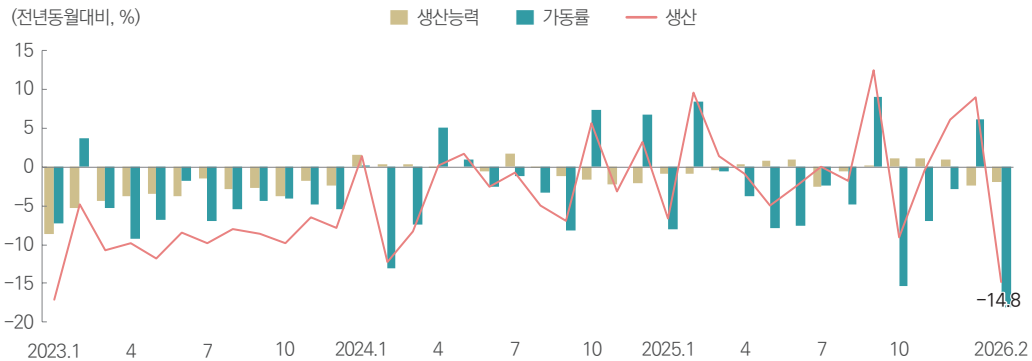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섬유: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2월 섬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8%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6.1 → ('26.1월) 9.1 → (2월) -14.8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8 → ('26.1월) 6.1 → (2월) -18.0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9 → ('26.1월) -2.4 → (2월) -1.9

| 그림 22 | 섬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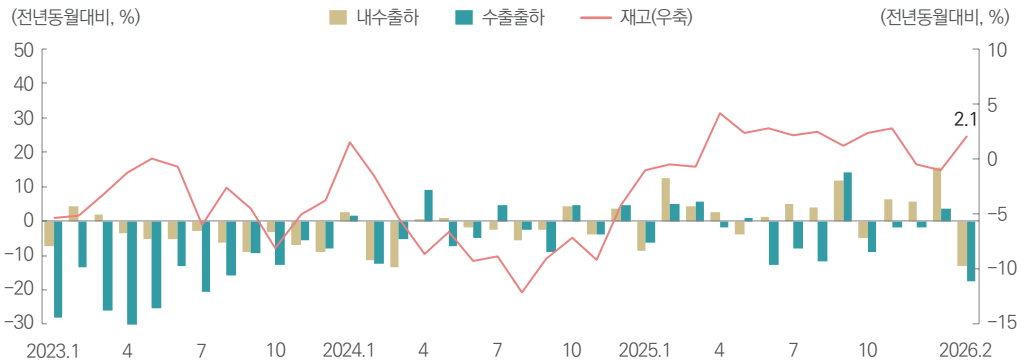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섬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5 → ('26.1월) -1.0 → (2월) 2.1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5.8 → ('26.1월) 15.6 → (2월) -13.0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0 → ('26.1월) 3.7 → (2월)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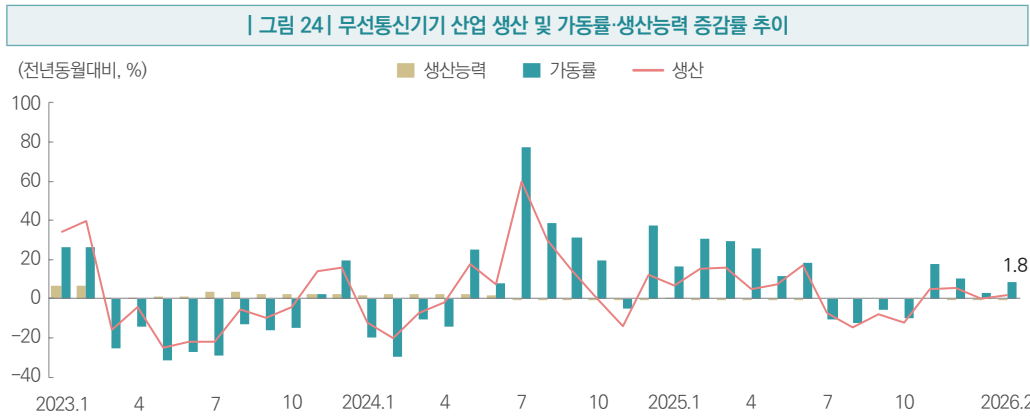
| 그림 23 | 섬유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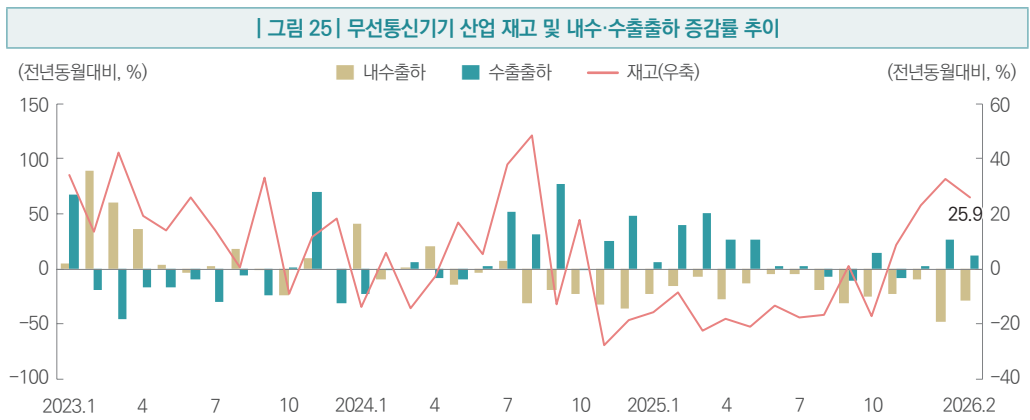
■ 무선통신기기: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과 「재고」가 모두 증가

- 2월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5.7 → ('26.1월) 0.2 → (2월) 1.8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0.4 → ('26.1월) 2.9 → (2월) 8.5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6 → ('26.1월) -0.6 → (2월) -0.6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무선통신기기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3.0 → ('26.1월) 32.7 → (2월) 25.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9.9 → ('26.1월) -48.0 → (2월) -29.1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4 → ('26.1월) 26.0 → (2월)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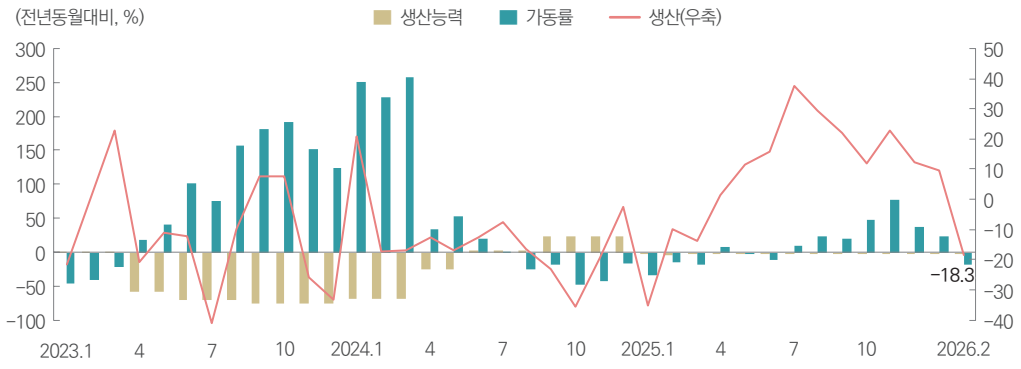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컴퓨터·주변장치: 전년동월대비 2월 「생산」과 「출하」가 모두 감소

- 2월 컴퓨터·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2.2 → ('26.1월) 9.7 → (2월) -18.3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36.8 → ('26.1월) 23.1 → (2월) -18.3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3 → ('26.1월) -2.3 → (2월)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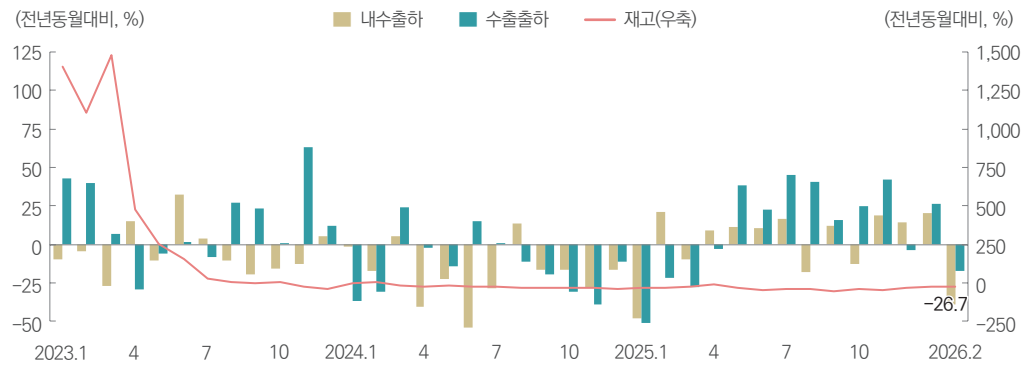
| 그림 26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월 컴퓨터·주변장치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6.7%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34.7 → ('26.1월) -29.2 → (2월) -26.7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4.6 → ('26.1월) 20.2 → (2월) -39.0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3.9 → ('26.1월) 26.3 → (2월) -17.4

| 그림 27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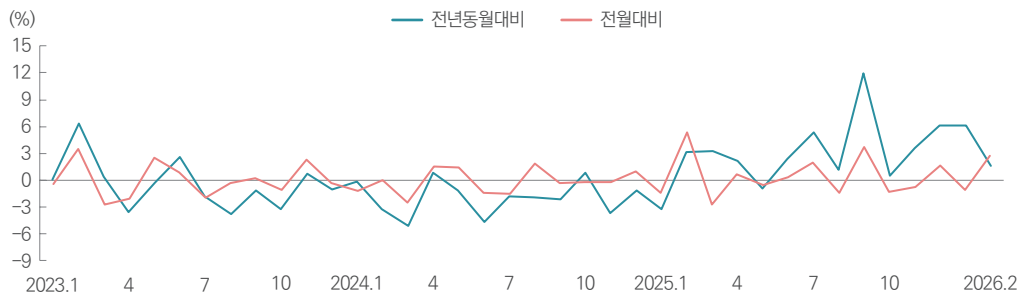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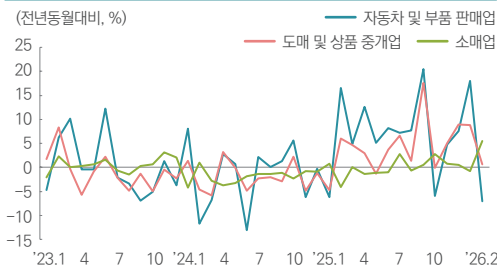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소매업(5.7%)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음식료품 소매업(45.0%),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14.4%), 의복 및 섬유제품 소매업(13.8%)의 경우 설 연휴가 전년 1월에서 금년 2월로 이동한 데 기인하고, 가전 및 전기장비 도매업(33.7%)의 경우 수출 호조로 반도체 제조용 전기장비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
- 전월대비로 2.7% 증가하였는데, 음식료품 소매업(27.4%)의 경우 명절 수요 증가,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13.8%)의 경우 시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로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판매 증가, 건축자재 도매업(9.8%)의 경우 본격적인 공사철(3월) 시작에 앞서 건축자재 선매입 증가 등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6.1 → ('26.1월) 6.1 → (2월) 1.6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2월) 1.7 → ('26.1월) -1.1 → (2월) 2.7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는 비내구재(11.3%)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음식료품(21.8%), 의복(8.9%), 의약품(8.3%)의 증가폭이 큼

| 그림 28 | 도소매업 생산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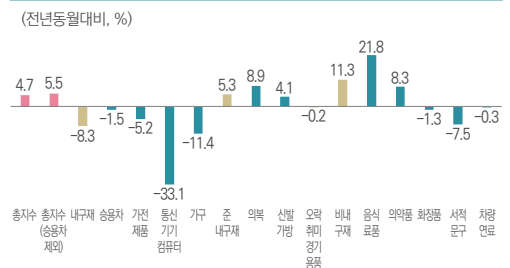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9 | 도소매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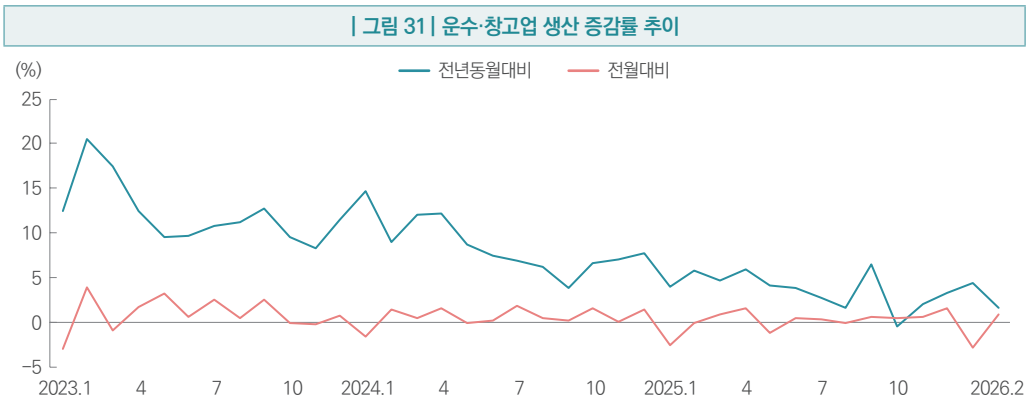
| 그림 30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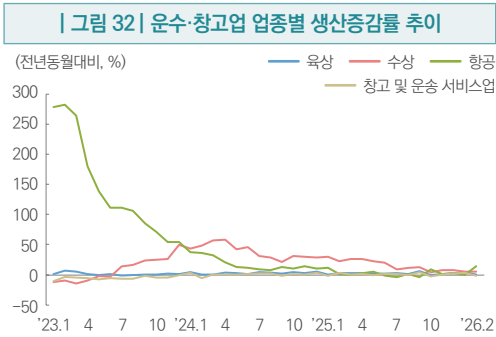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운수 및 창고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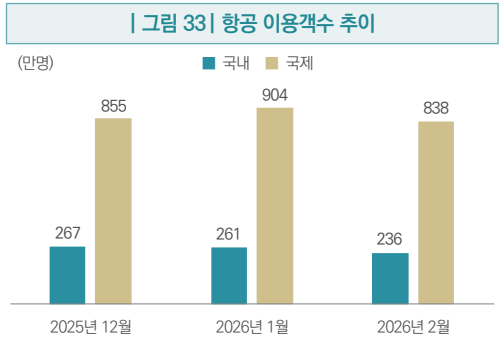
- 운수 및 창고업 생산은 항공운송업(11.9%), 철도운송업(7.7%), 소화물 전문운송업(7.1%), 수상운송업(4.3%) 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 항공운송업과 철도운송업의 경우 설 동안 국내외 이용객의 증가, 수상운송업의 경우 수출입 물동량 증가, 소화물 전문운송업의 경우 택배 운송 수요 증가에 기인
 - ※ 항공 이용객수는 2026년 2월 1,07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
 - ※ 2월 해상 물동량은 1억 2,174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하였고, 해상운임지수 SCFI와 CCFI 경우 2월 평균 각각 1,085, 1,284으로 전년동월대비 19.2%, 24.1% 감소
- 전월대비로 항공여객운송업(8.9%), 보관 및 창고업(2.8%), 소화물전문운송업(2.5%)을 중심으로 0.9%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3.2 → ('26.1월) 4.4 → (2월) 1.5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2월) 1.6 → ('26.1월) -2.9 → (2월) 0.9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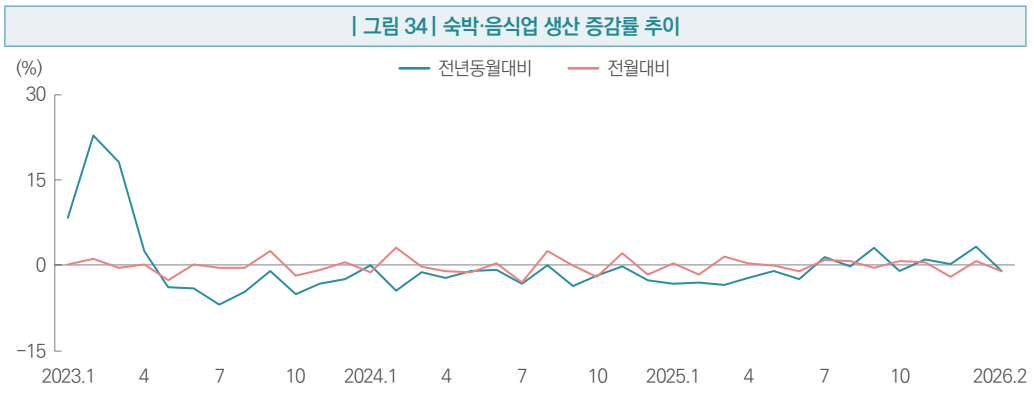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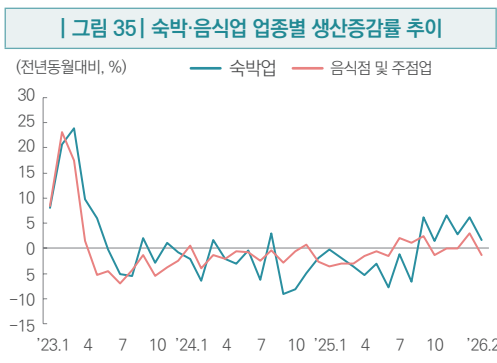
자료: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숙박 및 음식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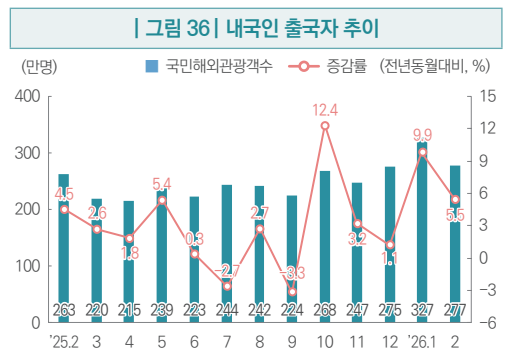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음식점업 및 주점업(-1.4%)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외식 물가 인상, 내국인 출국자 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 감소 등에 기인
 - ※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은 2026년 2월 2.9%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0%)을 상회
 - ※ 내국인 출국자는 2026년 2월 27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6.4%)과 주점업(-7.4%)을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커피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8.6%), 외국식 음식점업(3.5%)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
- 전월대비로 음식점업(-1.9%)을 중심으로 1.0% 감소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0.2 → ('26.1월) 3.3 → (2월) -1.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2월) -2.0 → ('26.1월) 0.8 → (2월) -1.0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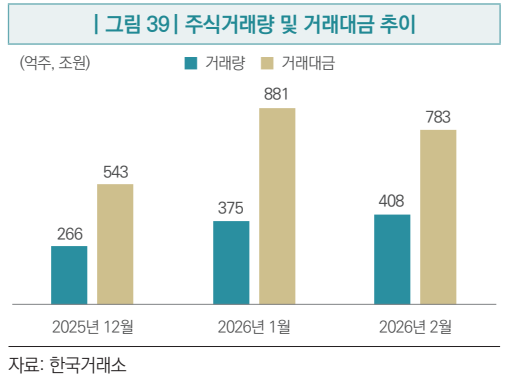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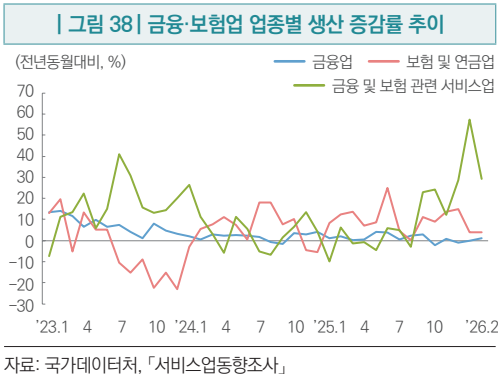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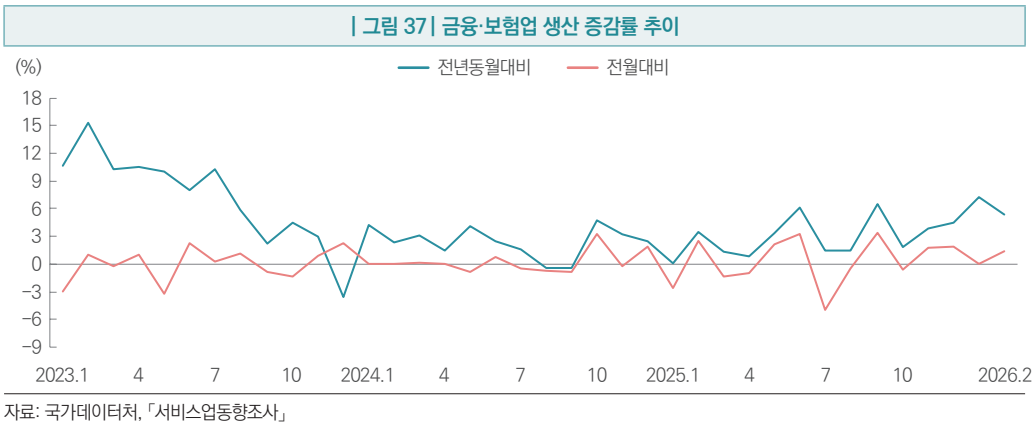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 금융 및 보험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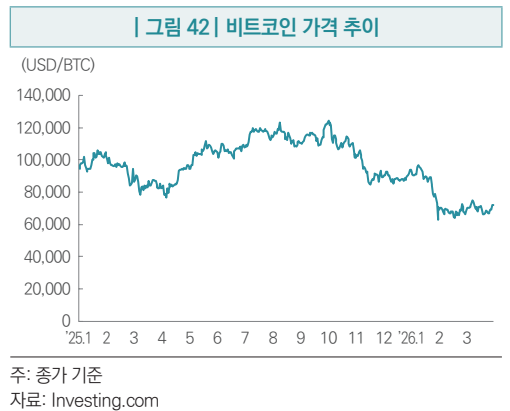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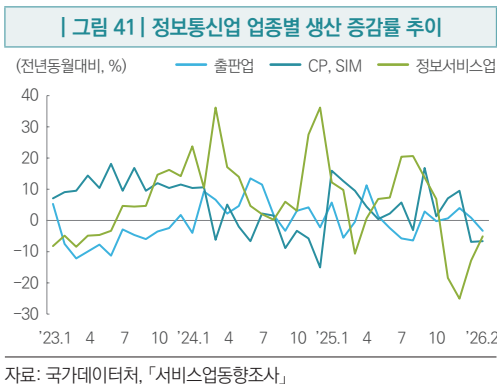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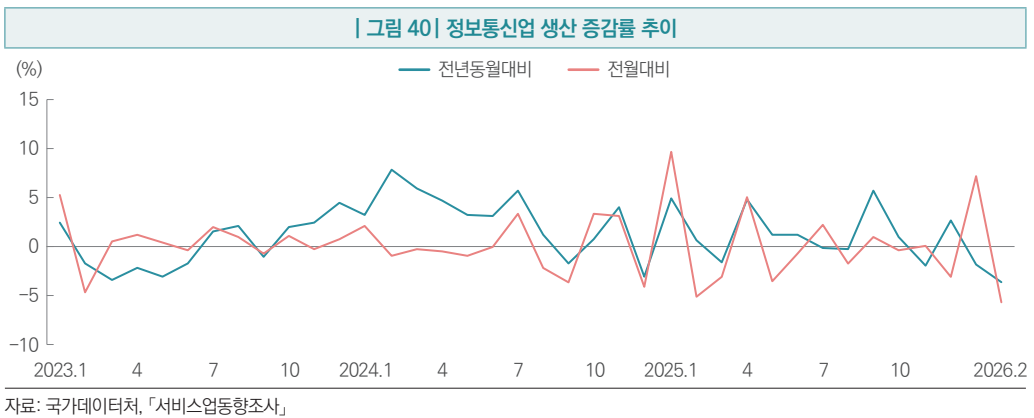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금융 지원서비스업(42.3%),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28.9%), 연금 및 공제업(11.6%)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금융지원서비스업과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급증,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주주환원 강화 등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 개인·기관 매수 및 ETF 자금 유입 확대 등에 기인
 - ※ 주식거래대금은 2월 78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5.0% 증가¹⁾
 -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 계약고)은 2월 2,11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9% 증가¹⁾
- 전월대비로 1.5%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금 및 공제업(16.6%),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2.8%)을 중심으로 수익이 증가한 데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4.5 → ('26.1월) 7.3 → (2월) 5.3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2월) 1.9 → ('26.1월) 0.0 → (2월) 1.5



1) 금융투자협회, <<https://freesis.kofia.or.kr>, 접속: 202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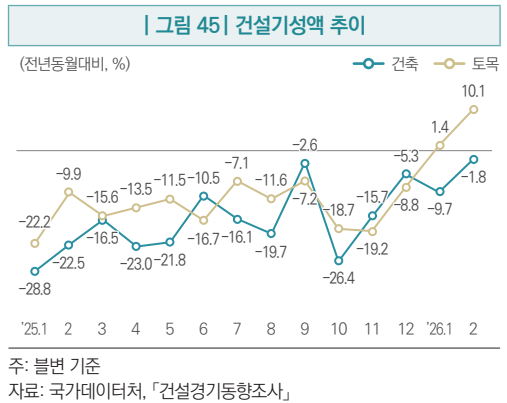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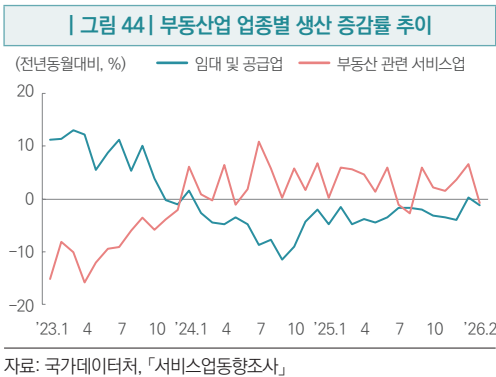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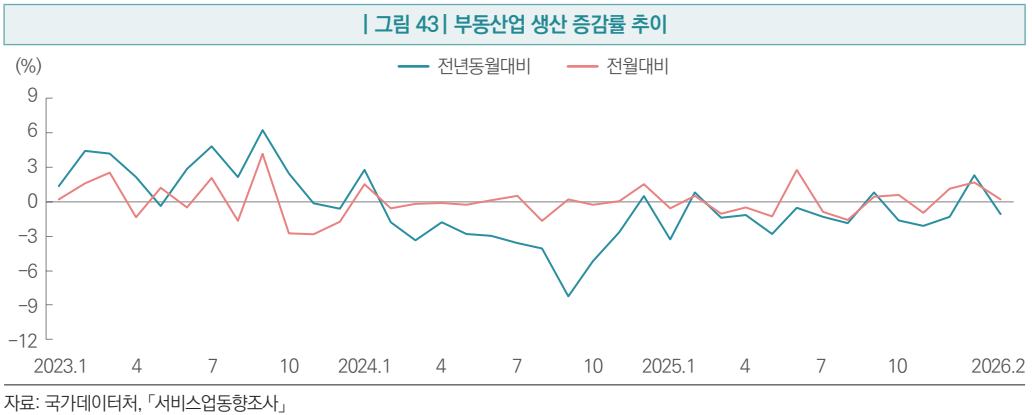
■ 정보통신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정보통신업 생산은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13.2%), 기타 정보 서비스업(-10.5%), 방송업(-8.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6%)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의 경우 스마트 미디어 확산 및 독서율 저하, 도서 평균가격 상승에 따른 도서 구매 저하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9%)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신규 프로젝트 발주 감소 및 지연 등에 기인
 - 기타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미 연준의 고금리 유지 등으로 가상자산 가격 하락세에 기인
 - ※ 비트코인의 2월 증가는 66,995 USD/BTC로 전년동월대비 20.6% 감소
- 전월대비로 출판업(-12.4%), 우편 및 통신업(-3.9%) 등을 중심으로 5.7% 감소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2.7 → ('26.1월) -1.9 → (2월) -3.7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2월) -3.1 → ('26.1월) 7.2 → (2월) -5.7



■ 부동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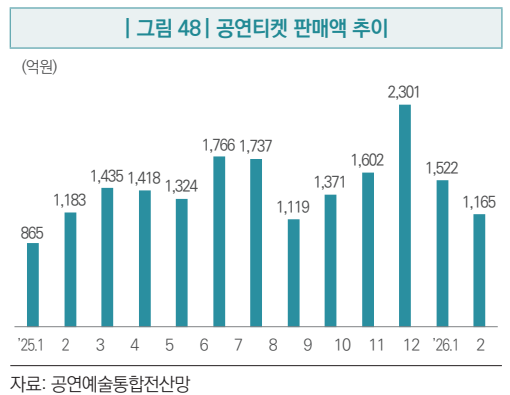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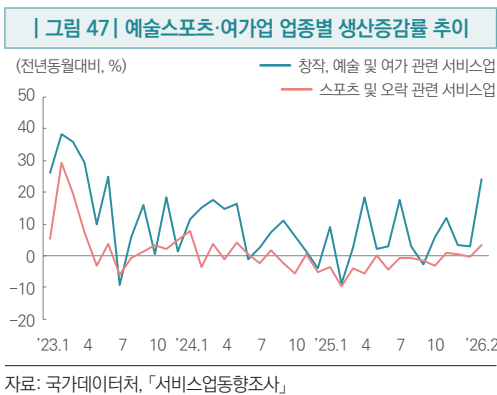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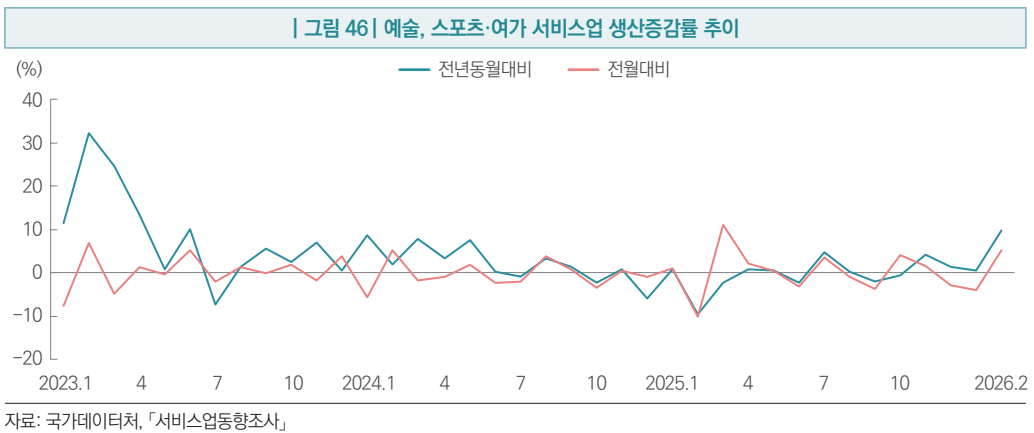
-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18.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1.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의 경우 '25.12월(10.4%), '26.1월(14.9%)의 높은 상승세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
 - ※ '25.12월과 '26.1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주택매매거래가 각각 45,921건(전년동월대비 37.0%), 38,322건(60.4%)임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된 데 기인
 - ※ 건설기성액²⁾의 경우 2월 불변기준으로 토목은 2.3조원(전년동월대비 10.1%) 증가하였으나 건설은 6.2조원(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전월대비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0.9%)을 중심으로 0.2%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3 → ('26.1월) 2.3 → (2월) -1.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2월) 1.1 → ('26.1월) 1.7 → (2월) 0.2



2) 건설기성액은 건설업체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시공하여 완료한 공사 금액을 의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4.0%), 스포츠 서비스업(7.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7% 증가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월 공연티켓 판매액이 1,1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7% 증가한 데 기인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53.3%)의 경우 전월 골프장 150여개 중 63개가 휴장이었던 기저 효과에 기인하고,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34.8%)의 경우 프로축구 K리그가 전년(2월 15일)과 달리 금년에는 2월 28일에 개막한 데 기인
- 전월대비로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5.9%)을 중심으로 5.2% 증가
 - 기온 상승과 설 연휴로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6.9%) 등의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3 → ('26.1월) 0.4 → (2월) 9.7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12월) -2.9 → ('26.1월) -4.0 → (2월) 5.2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 2026년 3월 중 총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총수출은 861.3억달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무역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대비는 48.3%, 전월대비는 28.0% 증가
 - 수출액(억달러): ('25.12월) 695.1 → ('26.1월) 658.1 → (2월) 673.1 → (3월) 861.3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3.3 → ('26.1월) 33.8 → (2월) 28.7 → (3월) 48.3
 - 증감률(전월대비, %): ('25.12월) 14.4 → ('26.1월) -5.3 → (2월) 2.3 → (3월) 28.0

■ 2026년 3월 중 주요 13대 산업³⁾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대 산업의 수출은 703.2억달러로 가전(-7.7%), 일반기계(-6.3%), 철강(-2.2%)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151.4%), 컴퓨터·주변장치(83.8%), 석유(54.9%) 등이 증가하며 55.0% 증가
 - 수출액(억달러): ('25.12월) 550.0 → ('26.1월) 524.7 → (2월) 546.5 → (3월) 703.2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3.7 → ('26.1월) 37.0 → (2월) 36.4 → (3월) 55.0
- 전월대비: 13대 산업 수출이 전부 증가하며 전월대비 28.7% 증가
 - 증감률(전월대비, %): ('25.12월) 15.6 → ('26.1월) -4.6 → (2월) 4.1 → (3월) 28.7
-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과 AI 반도체의 높은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최초로 328.3억 달러로 월 수출 최고액을 기록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3월) 130.6(11.9%) → ('26.3월) 328.3(151.4%)
 - DRAM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5.4Q) 8.1 → ('26.1월) 11.5 → (2월) 13.0 → (3월) 13.0
- 자동차 수출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로 중고차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친환경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며 수출이 증가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3월) 80.7(-0.1%) → ('26.3월) 81.7(1.2%)

3) 생산과 수출의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통계청의 업종별 산업분류(KSIC)와 산업통상부의 품목별 산업분류기준(MTI)를 매칭하여 분류

4) 자동차(수송기계,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 및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포함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3월) 62.3(1.0%) → ('26.3월) 63.7(2.2%)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3월) 18.4(-3.7%) → ('26.3월) 18.0(-2.4%)
- 일반기계 수출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과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미국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감소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3월) 41.4(-3.5%) → ('26.3월) 38.8(-6.3%)

| 표 1 | 산업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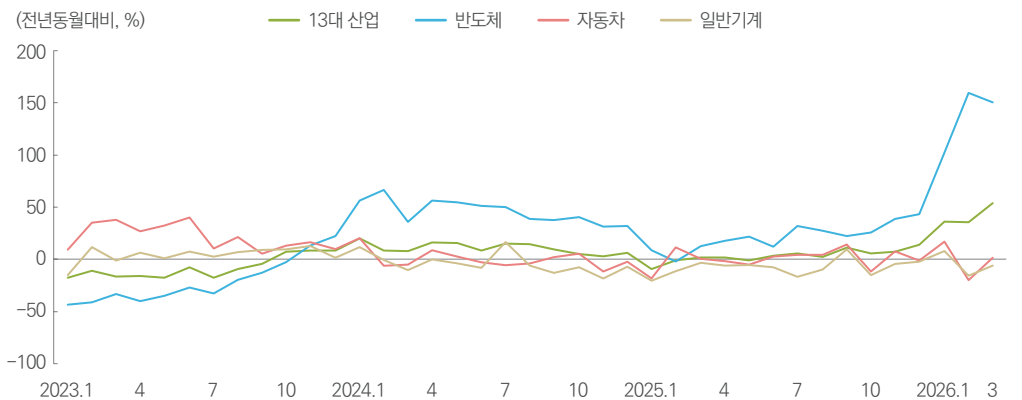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2026				전월대비
	12월	1월	2월	3월	12월	1월	2월	3월*	
총수출(수출액)	613.6	491.8	522.9	580.7	695.1	658.1	673.1	861.3	28.0
총수출	6.6	-10.1	0.4	2.7	13.3	33.8	28.7	48.3	
13대 산업(수출액)	483.6	383.0	400.7	453.6	550.0	524.7	546.5	703.2	28.7
13대 산업	5.9	-10.0	-1.3	1.5	13.7	37.0	36.4	55.0	
반도체	31.5	8.1	-3.0	11.9	43.2	102.8	160.6	151.4	30.6
자동차	-2.9	-19.2	11.7	-0.1	-1.7	17.4	-21.2	1.2	30.6
화학	1.8	-11.1	-0.5	-9.8	-8.2	-0.7	-15.3	5.8	15.9
일반기계	-7.4	-21.4	-12.2	-3.5	-2.2	8.5	-16.2	-6.3	19.1
석유	-11.6	-28.1	-12.5	-29.2	5.5	8.1	-3.6	54.9	36.5
철강	2.9	-5.0	-4.3	-11.1	-10.8	0.0	-7.8	-2.2	6.3
조선	-15.6	-1.3	-9.9	51.1	-1.9	-0.1	41.1	10.7	59.4
컴퓨터주변장치	34.3	-5.1	5.0	14.5	18.8	53.1	83.0	83.8	28.6
무선통신기기	16.1	-9.4	26.5	11.7	24.7	66.9	12.7	43.5	21.4
섬유	-4.5	-16.1	-1.7	-6.0	-0.9	5.7	-14.4	2.8	22.3
가전	3.7	-17.2	-4.2	-7.7	-1.6	-0.4	-20.0	-7.7	16.4
이차전지	-13.6	-12.6	-9.5	-4.8	-12.9	5.8	-5.7	36.1	46.2
바이오헬스	-2.5	-1.2	4.9	7.0	23.8	16.2	7.1	6.2	14.3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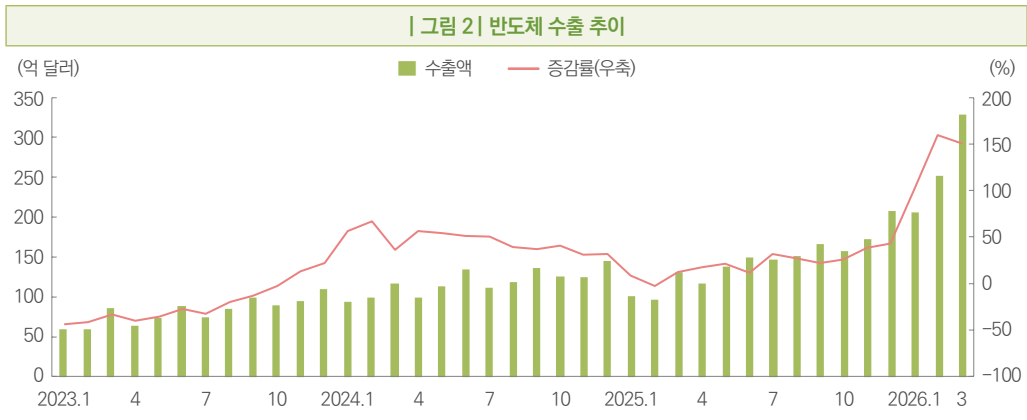
| 그림 1 | 13대 산업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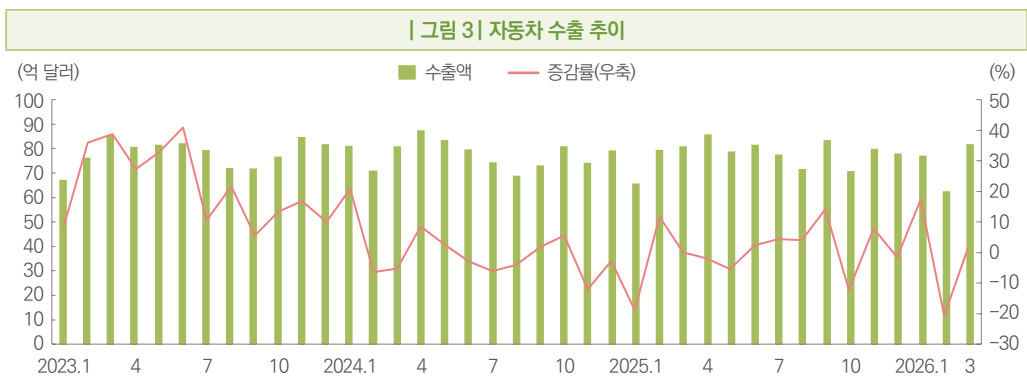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1.4% 증가하여 328.3억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102.7 → (2월) 160.6 → (3월) 151.4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26.1월) 205.4 → (2월) 251.4 → (3월) 328.3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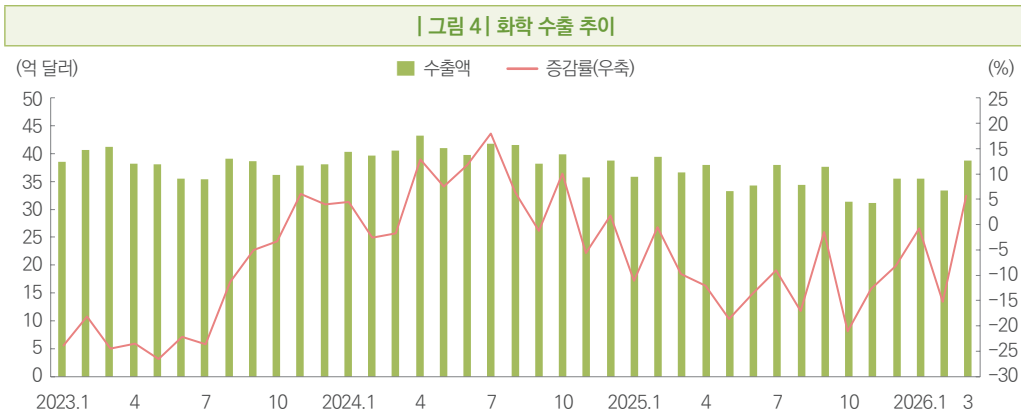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여 81.7억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17.4 → (2월) -21.2 → (3월) 1.2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 ('26.1월) 77.0 → (2월) 62.5 → (3월) 81.7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화학: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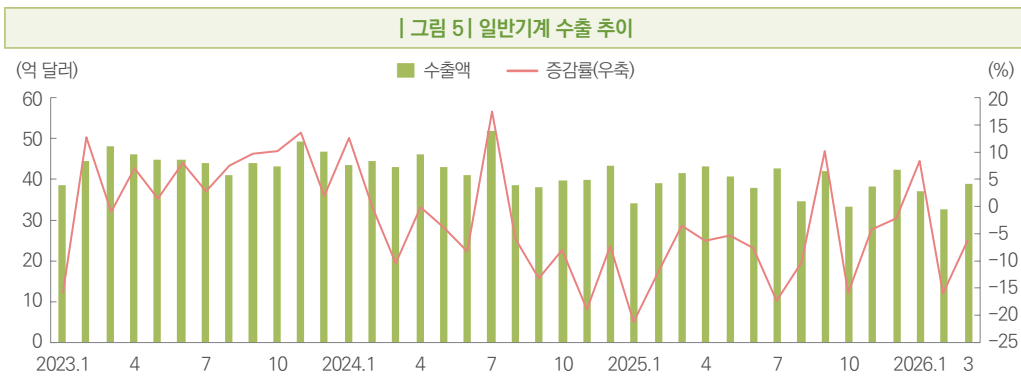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하여 38.7억달러를 기록
 - 화학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0.7 → (2월) -15.3 → (3월) 5.8
 - 화학 수출액(억달러): ('26.1월) 35.5 → (2월) 33.4 → (3월) 38.7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일반기계: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하여 38.8억달러를 기록
 - 일반기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8.5 → (2월) -16.2 → (3월) -6.2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 ('26.1월) 37.1 → (2월) 32.6 → (3월)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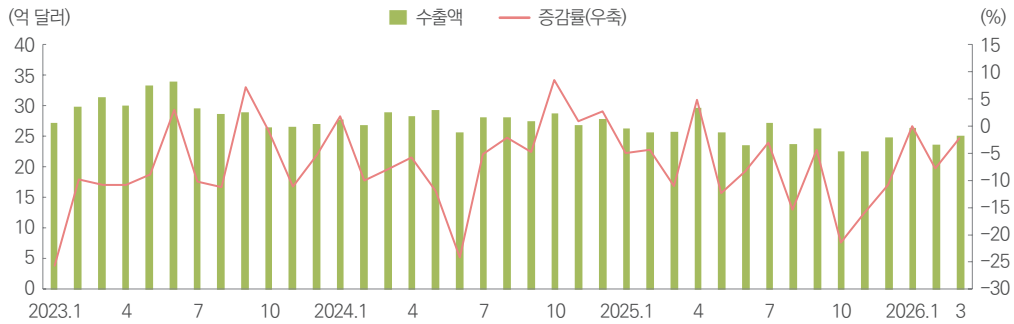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철강: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여 25.1억달러를 기록
 - 철강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0.0 → (2월) -7.8 → (3월) -2.2
 - 철강 수출액(억달러): ('26.1월) 26.3 → (2월) 23.6 → (3월) 25.1

| 그림 6 | 철강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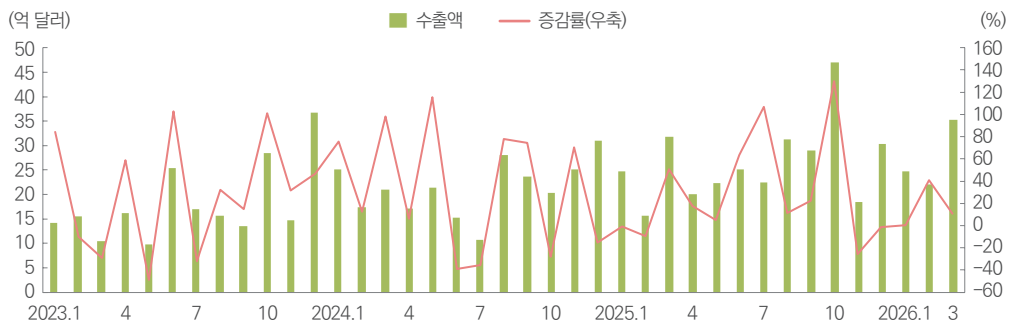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조선: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하여 35.2억달러를 기록
 - 조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0.1 → (2월) 41.1 → (3월) 10.7
 - 조선 수출액(억달러): ('26.1월) 24.8 → (2월) 22.1 → (3월)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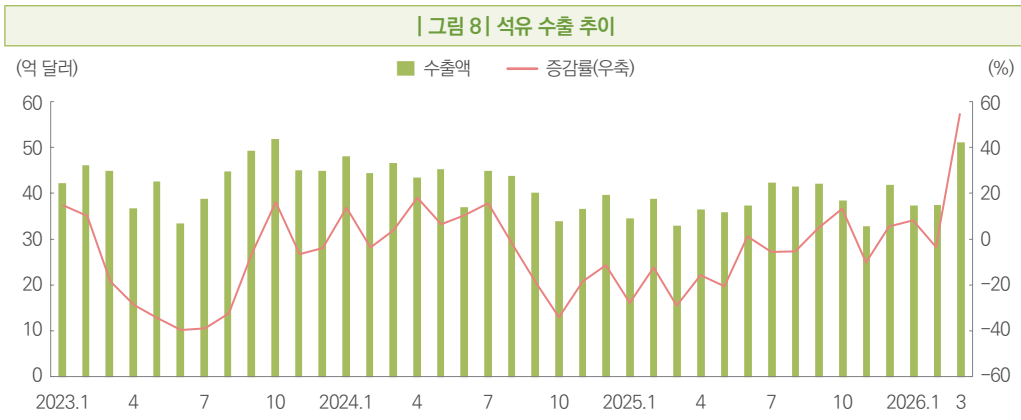
| 그림 7 | 조선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석유: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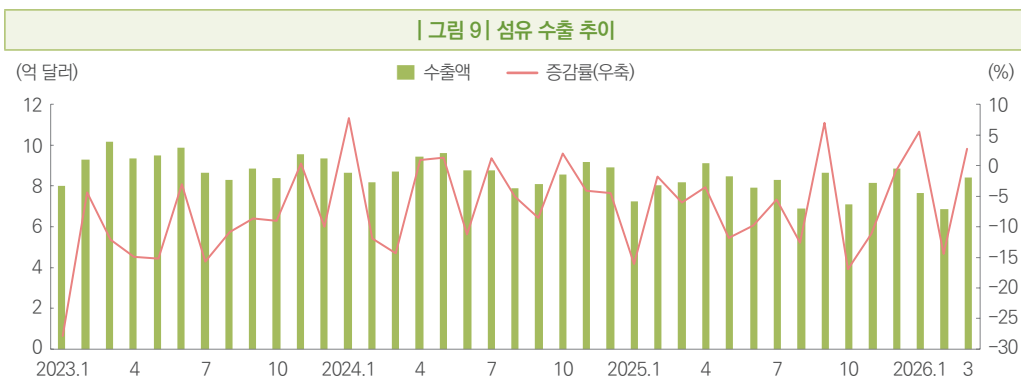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4.9% 증가하여 51.0억달러를 기록
 - 석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8.1 → (2월) -3.6 → (3월) 54.9
 - 석유 수출액(억달러): ('26.1월) 37.3 → (2월) 37.4 → (3월) 51.0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섬유: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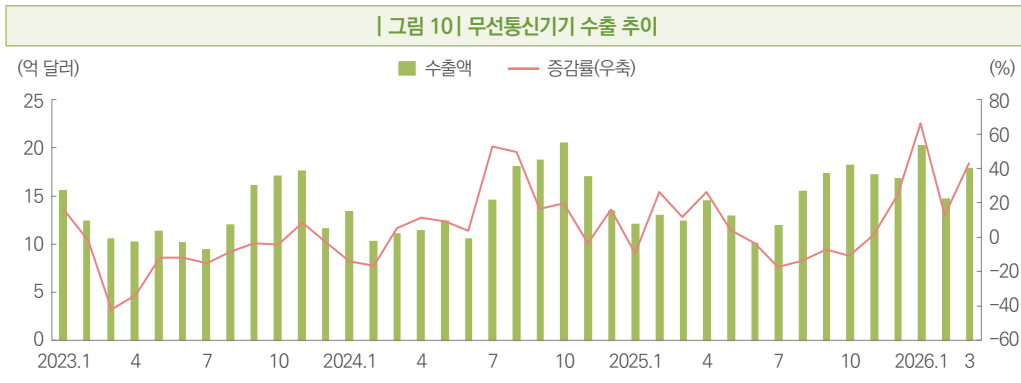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여 8.4억달러를 기록
 - 섬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5.7 → (2월) -14.4 → (3월) 2.8
 - 섬유 수출액(억달러): ('26.1월) 7.7 → (2월) 6.9 → (3월) 8.4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무선통신기기: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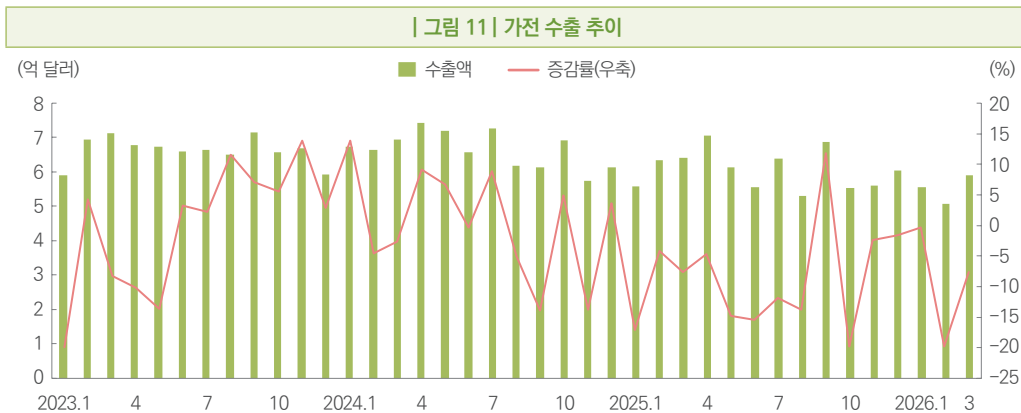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3.5% 증가하여 17.9억달러를 기록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66.9 → (2월) 12.7 → (3월) 43.5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억달러): ('26.1월) 20.3 → (2월) 14.7 → (3월) 17.9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가전: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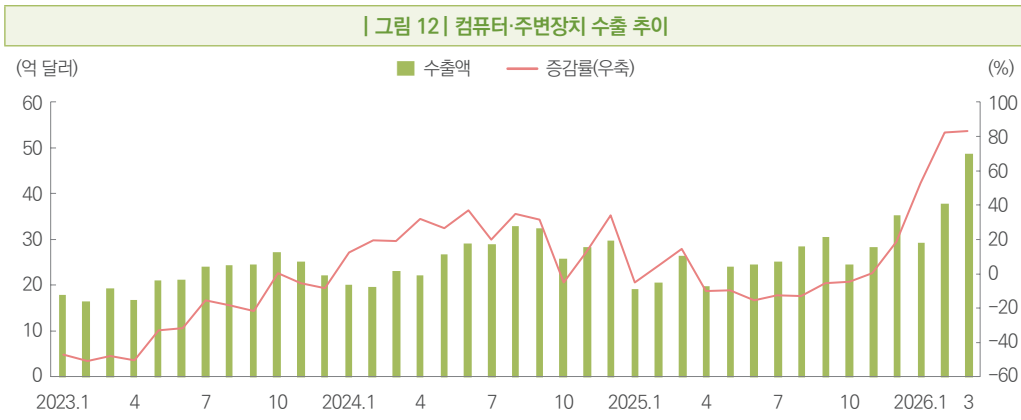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7% 감소하여 5.9억달러를 기록
 - 가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0.4 → (2월) -20.0 → (3월) -7.7
 - 가전 수출액(억달러): ('26.1월) 5.5 → (2월) 5.1 → (3월) 5.9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컴퓨터·주변장치: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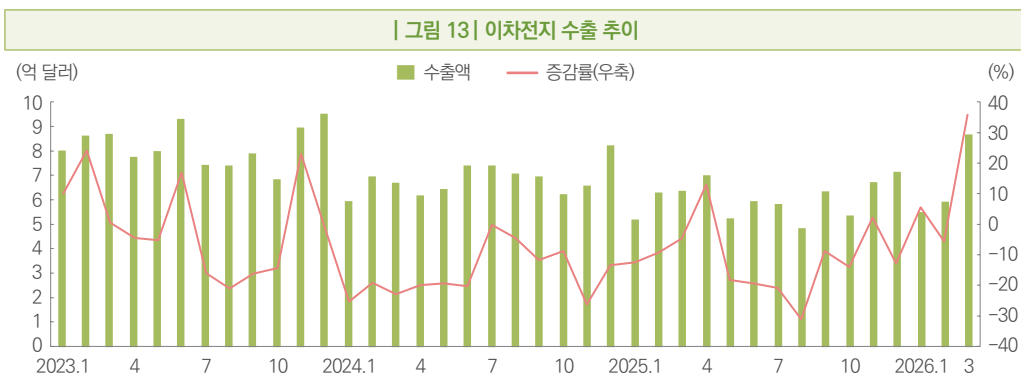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3.8% 증가하여 48.6억달러를 기록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53.1 → (2월) 83.0 → (3월) 83.8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액(억달러): ('26.1월) 29.3 → (2월) 37.8 → (3월) 48.6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이차전자: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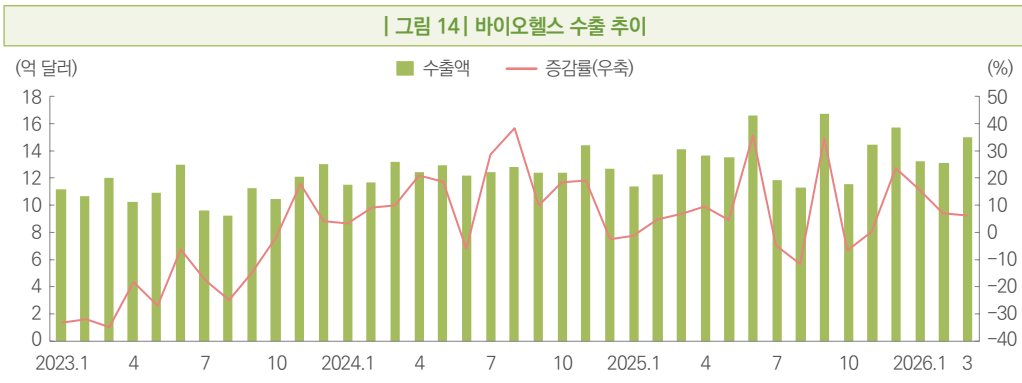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6.1% 증가하여 8.7억달러를 기록
 - 이차전자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5.6 → (2월) -5.7 → (3월) 36.1
 - 이차전자 수출액(억달러): ('26.1월) 5.5 → (2월) 5.9 → (3월) 8.7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바이오헬스: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여 15.0억달러를 기록
 - 바이오헬스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16.2 → (2월) 7.1 → (3월) 6.2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달러): ('26.1월) 13.2 → (2월) 13.1 → (3월) 15.0



■ 주요 유망소비재⁵⁾: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전월대비 20.7% 증가하여 43.6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1월) 22.2 → (2월) -0.2 → (3월) 13.6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액(억 달러): ('26.1월) 38.5 → (2월) 36.2 → (3월) 43.6

| 표 2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24	2025				2026				전월대비
	12월	1월	2월	3월	12월	1월	2월	3월*		
유망소비재(수출액)	36.1	31.5	36.2	38.4	42.7	38.5	36.2	43.6	20.7	
유망소비재	9.6	-3.8	15.6	8.5	18.4	22.2	-0.2	13.6		
농수산식품	14.3	-2.7	19.3	10.2	7.1	18.8	-9.4	14.6	27.9	
화장품	25.5	-4.8	23.4	21.0	21.8	36.1	3.5	27.0	30.1	
패션의류	-8.0	-23.6	3.0	-0.2	7.5	15.0	1.0	19.2	24.9	
생활유아용품	9.5	-12.4	14.4	-7.9	24.2	19.8	-10.1	8.7	20.0	
의약품	-4.9	9.6	7.4	13.2	28.0	15.9	16.9	2.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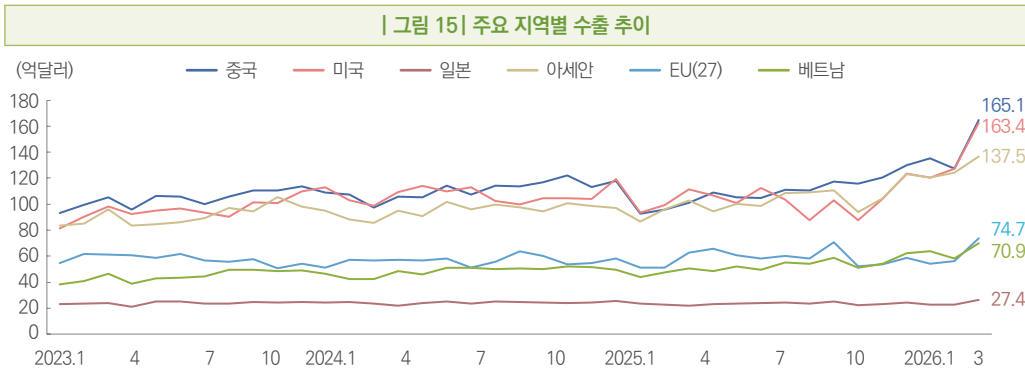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5)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5대 유망소비재를 확정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 3월 10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중국,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

-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의 강한 수요와 함께 무선통신기기, 화학 등에서도 증가하며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 기록
 - 대중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⁶: (반도체) 156.7%, (무선통신기기) 36.6%, (화학) 6.8%
- 대미국 수출은 미국의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일반기계 등 일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강한 수요로 전반적으로 수출이 증가
 - 대미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반도체) 392.3%, (이차전지) 73.6%, (일반기계) -21.6%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3 |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가공단계별	2024	2025				2026			
	12월	1월	2월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대비
중국	8.4	-13.9	-1.4	-4.4	10.1	46.8	34.1	64.2	29.6
미국	5.4	-9.5	0.8	2.1	3.7	29.4	28.5	47.1	28.6
일본	6.3	-7.0	-4.6	1.5	-7.1	-4.9	0.6	26.8	20.1
아세안	2.2	-1.9	12.4	8.3	27.7	40.3	30.4	34.3	10.3
EU(27)	15.2	-11.6	-10.4	9.7	0.5	6.9	10.3	19.3	33.5
중동	-0.7	-20.0	19.6	13.0	25.6	18.1	-0.9	-49.1	-47.4
중남미	15.8	-6.8	-6.1	-17.2	4.1	19.1	-2.0	37.7	42.8
CIS	9.3	-11.6	-16.4	30.0	-3.8	-1.7	-22.1	-12.3	18.0
베트남	6.5	4.0	-12.5	4.0	27.4	48.1	23.9	41.1	20.9
인도	6.0	-4.8	8.2	-0.7	2.0	14.6	8.1	30.3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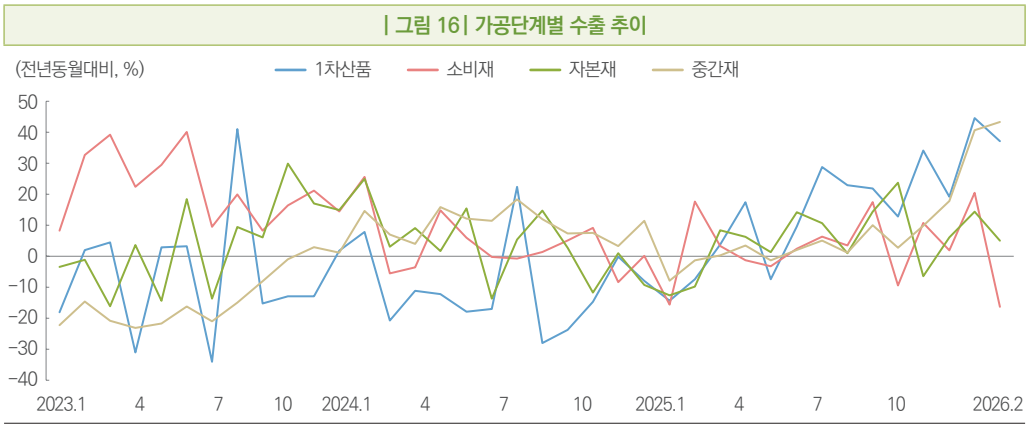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6) 해당 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통계

3 가공단계별 수출

■ 2월 가공단계별 「수출」 중 중간재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증가

- 1차상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7.4% 증가, 전월대비 0.8% 증가
 - 1차상품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9.3 → ('26.1월) 44.9 → (2월) 37.4
- 소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 전월대비 16.2% 감소
 - 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8 → ('26.1월) 20.5 → (2월) -16.6
- 자본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전월대비 13.1% 감소
 - 자본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6.1 → ('26.1월) 14.4 → (2월) 5.0
- 중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3.7% 증가, 전월대비 8.0% 증가
 - 중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 17.8 → ('26.1월) 40.9 → (2월) 43.7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4 |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2026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전월대비
1차상품	-8.1	-14.5	-7.5	19.3	44.9	37.4	0.8
소비재	0.0	-15.9	17.7	1.8	20.5	-16.6	-16.2
자본재	-9.4	-12.8	-10.0	6.1	14.4	5.0	-13.1
중간재	11.5	-8.0	-1.4	17.8	40.9	43.7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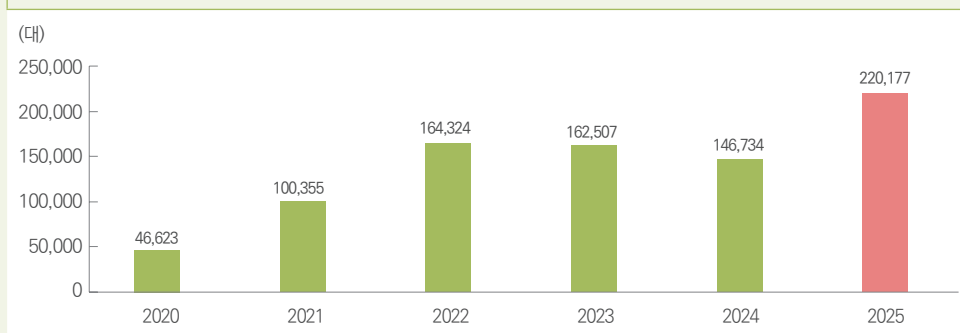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BOX 1] 한국 전기 승용차 시장 현황

■ 2025년 국내 전기 승용차 신규 등록을 22만 177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1% 증가

- 전기 승용차 캐즘⁷⁾으로 둔화되었던 전기 승용차 시장이 일부 모델의 가격 인하와 신모델 출시에 힘입어 증가 전환
 - 전기자동차 판매는 지난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 36.4%를 기록
- 2025년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 승용차 비중을 나타내는 침투율은 전년대비 4.1%p 오른 13.1%를 기록

연도별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내수 전기 승용차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수입 전기 승용차 판매가 급증

- 테슬라가 ‘모델 Y’의 부분변경 모델 ‘주니퍼’를 앞세워 2025년 5만 9,893대를 판매, 제조사 판매율이 전년대비 101.3%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은 27.2%를 기록
-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인 BYD의 본격적인 한국 승용차 시장 진입으로 판매가 전년대비 601.8% 증가하며 전기 승용차의 내수시장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

7) 캐즘(chasm)은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초기 시장(얼리 어답터, early adopter)에서 주류 시장(대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 수요가 둔화하여 대중화 직전 기술이나 제품의 시장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제조사별 신규 등록 대수

(단위: 대)

제조사	2024	2025	증감률(%)	시장 점유율(%)
기아	41,736	60,609	45.2	27.5
테슬라	29,750	59,893	101.3	27.2
현대	44,986	55,461	23.3	25.2
KG모빌리티	6,188	8,914	44.1	4.0
BMW	6,405	7,729	20.7	3.5
BYD	1,037	7,278	601.8	3.3
폭스바겐/아우디	6,076	6,674	9.8	3.0
포르쉐	1,175	3,625	208.5	1.6
폴스타	800	2,957	269.6	1.3
메르세데스벤츠	4,486	2,072	-53.8	0.9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146,736	220,177	50.1	100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수입 전기 승용차의 국내 판매가 크게 증가

-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Y(주니퍼)' 영향으로 중국산 전기 승용차는 전년대비 112.4% 증가한 7만 4,728대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33.9%를 기록
 - 국산 전기 승용차는 전년대비 34.2% 증가한 12만 5,978대가 판매된 반면, 수입산 전기 승용차는 78.2% 증가한 9만 4,199대가 판매
- 2022년 시장 점유율 75.0%를 기록했던 국산 전기 승용차는 2025년 57.2%를 기록
 - 국산 전기 승용차 시장 점유율(%): (2021년) 74.2 → (2022년) 75.0 → (2023년) 70.8 → (2024년) 64.0 → (2025년) 57.2

제조국별 신규 등록 대수

(단위: 대)

제조사	2024	2025	증감률(%)	시장 점유율(%)
대한민국	93,859	125,978	34.2	57.2
중국	35,179	74,728	112.4	33.9
독일	13,488	16,286	20.7	7.4
미국	2,096	1,703	-18.8	0.8
헝가리	1,054	516	-51	0.2
프랑스	208	430	106.7	0.2
오스트리아	41	191	365.9	0.1
폴란드	32	145	353.1	0.1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146,736	220,177	50.1	100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Ⅲ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가. 국제 가격

■ 2026년 3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원유 가격은 95.6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5.2%, 전월대비 40.5% 상승
 - 원유가격(달러/bbl): ('26.1월) 63.7 → (2월) 68.0 → (3월) 95.6
 - 원유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18.6 → (2월) -7.9 → (3월) 35.2
- 이는 중동전쟁으로 생산량 감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수송 제한 등에 기인⁸⁾
 - OPEC의 3월 원유생산량은 전월 대비 7.30백만b/d 감소한 21.57백만b/d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Reuters, 3.31)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데 전쟁 이후 유조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약 2,000만 b/d 규모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IEA 회원국들의 전략비축유의 긴급 방출 합의, 비OPEC 국가들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면서 공급 충격은 일부 상쇄되고 있으나 중동유를 주로 수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WTI유 구매에 나서면서 WTI유 가격이 급등
 - IEA 회원국들은 3월 11일 긴급 비축 석유 400백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기로 합의⁹⁾
 - WTI유 선물가격은 2월 말 60달러대 중반에서 4월 7일 배럴당 117.6달러까지 상승
 - OPEC+ 주요 8개국¹⁰⁾은 5월 원유생산량을 20.6만 b/d 증산하기로 합의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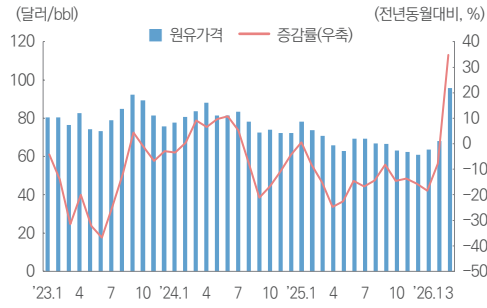
8) IEA, "Oil Market Report, 12 March 2026. <https://www.iea.org/reports/oil-market-report-march-2026?utm_source=chatgpt.com> 접속: 2026.4.7.)

9) 세계 전략비축유 재고는 2026년 1월 8,210백만 배럴로, OECD가 50%, 중국 15%를 차지

10)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11)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778>>, 접속: 2026.4.8.)

| 그림 1 | 원유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 표 1 | 원유 가격 동향

구분	2026 (단위: 달러/ barrel, %)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3월	1월	2월	3월		
Brent	72.6	66.8	71.1	103.7	42.9	45.8
Dubai	71.7	63.9	68.4	91.9	28.1	34.4
WTI	67.8	60.3	64.6	91.2	34.4	41.2
평균 ¹⁾	70.7	63.7	68.0	95.6	35.2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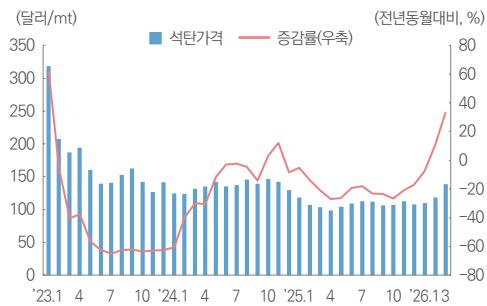
주: Brent, Dubai, WTI의 평균

자료: 세계은행

■ 2026년 3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석탄 가격은 톤당 138.6달러(호주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33.3%, 전월대비 17.1% 상승
 - 석탄 가격(달러/mt): ('26.1월) 109.8 → (2월) 118.4 → (3월) 138.6
 - 석탄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7.4 → (2월) 10.7 → (3월) 33.3
- 석탄 가격 상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와 공급망 불안에 기인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발전사들이 발전 비용이 높아진 가스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석탄 수요가 폭증

| 그림 2 | 석탄 가격 추이



주: 호주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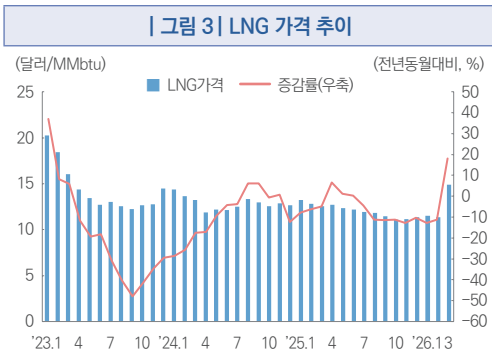
| 표 2 | 석탄 원산지별 가격 동향

구분	2026 (단위: 달러/mt, %)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3월	1월	2월	3월		
호주	104.0	109.8	118.4	138.6	33.3	17.1
남아프리카	98.0	90.6	91.2	93.8	-4.2	2.9
평균	101.0	100.2	104.8	116.2	15.1	10.9

자료: 세계은행

■ 2026년 3월 중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천연가스지수는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동전쟁으로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LNG 생산이 중단되면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
 - 천연가스지수(2010=100): ('26.1월) 155.8 → (2월) 105.0 → (3월) 132.2
 - 천연가스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1월) 21.3 → (2월) -21.0 → (3월) 8.8
-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14.9달러(일본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18.4%, 전월대비 31.1% 상승
 - 액화천연가스가격(달러/MMbtu): ('26.1월) 11.5 → (2월) 11.3 → (3월) 14.9
 - 액화천연가스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12.9 → (2월) -11.4 → (3월) 18.4



주: 일본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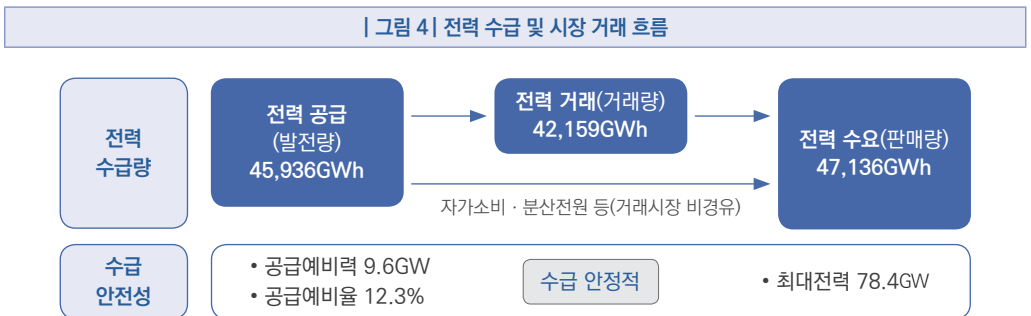
| 표 3 | LNG 가격 동향

(단위: 달러/MMbtu, %)

구분	2025	2026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3월	1월	2월	3월		
미국 (Henry Hub)	4.1	7.6	3.6	3.0	-26.2	-15.7
유럽 (TTF)	13.2	11.8	11.2	17.9	35.3	59.4
일본 (JKM)	12.5	11.5	11.3	14.9	18.4	31.1

자료: 세계은행

나. 전력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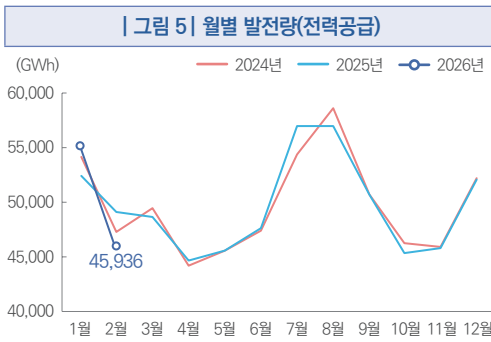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전력 동향에서 사용되는 주요 단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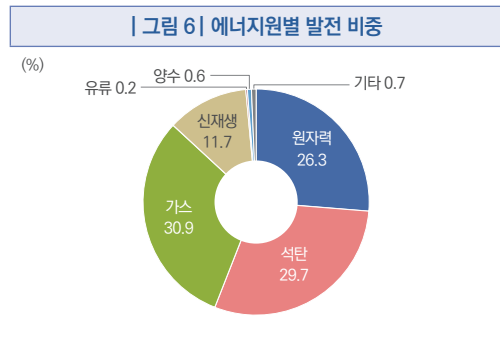
- 전력(Power, 단위: W, kW, MW, GW)은 일정 시점에서의 전기 사용 세기(출력)를 의미하며, 주로 발전설비의 설치용량이나 순간 최대수요를 나타낼 때 사용됨
- 전력량(Energy, 단위: Wh, kWh, MWh, GWh)은 전력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누적량으로, 국가 간 전력의 생산·거래·판매 등 에너지 총량을 집계하는 데 활용됨
- 개념적으로 전력은 물의 흐름의 세기(수압)에,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 축적된 물의 양에 각각 비유할 수 있음.

■ 2월 전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량」 및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판매량」은 증가

- 발전량은 45,936GWh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 기저발전 비중은 56%를 차지
 - 발전량(GWh): ('25.12월) 52,135 → ('26.1월) 55,149 → (2월) 45,936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2월) -0.1 → ('26.1월) 5.2 → (2월) -6.4
 - 1~2월 누적 발전량은 101,085GWh로 전년 수준을 하회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전원믹스)은 가스 30.9%, 석탄 29.7%, 원자력 26.3%, 신재생 11.7% 순이며, 기저발전¹³⁾ 비중은 5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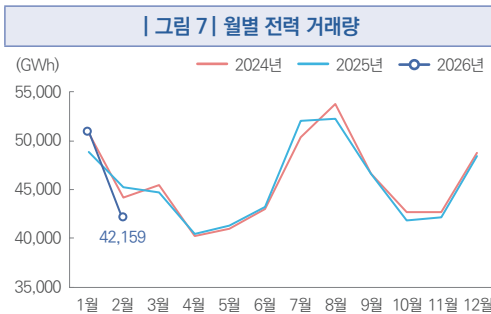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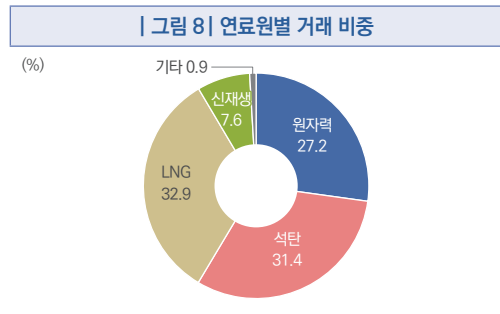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전력거래량¹⁴⁾은 42,159GWh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
 - 조업일수 감소(3일) 및 평균기온 상승(3.2℃)에 따른 난방수요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큰 폭 감소
 - ※ 조업일수: ('25.12)22일 → ('26.2)19일, 평균기온: ('25.2)-0.5℃ → ('26.2)2.7℃
 - 전력거래량(GWh): ('25.12월) 48,494 → ('26.1월) 51,072 → (2월) 42,159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2월) -0.5 → ('26.1월) 4.6 → (2월) -6.7
 - 1~2월 누적 판매량은 93,232GWh로 전년 수준을 하회
 - 연료원별 비중은 LNG 32.9%, 석탄 31.4%, 원자력 27.2%, 신재생 7.6% 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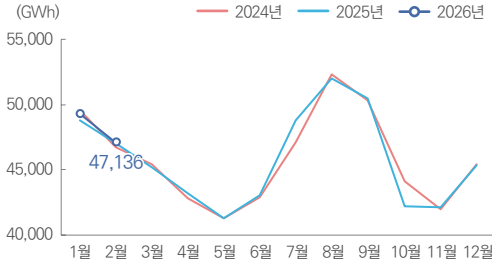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3) 기저발전은 전력수요의 기초부하를 담당하기 위해 24시간 안정적으로 연속 운전되는 발전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원자력 및 석탄발전이 이에 해당함
 14)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거래량(PPA거래량 불포함)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전력판매량은 47,136GWh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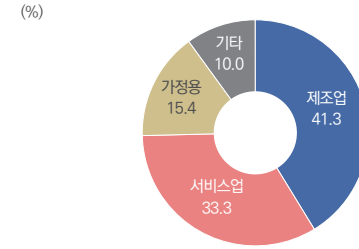
- 전력판매량(GWh): ('25.12월) 45,351 → ('26.1월) 49,353 → (2월) 47,136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2월) -0.1 → ('26.1월) 1.1 → (2월) 0.2
- 1~2월 누적 전력판매량은 96,488GWh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제조업 41.3%, 서비스업 33.3%, 가정용 15.4% 순

| 그림 9 | 월별 전력 판매량(전력수요)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그림 10 | 용도별 전력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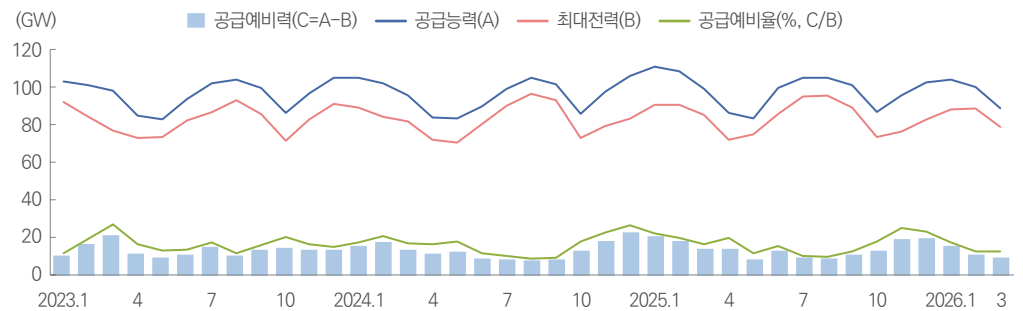


주: 기타는 공공용, 농수산업, 광업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3월 전력 수급 안정성은 「최대전력»,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등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최대전력은 78.4GW로 전년동월대비 7.9% 감소
 - 최대전력(GW): ('26.1월) 88.5 → (2월) 89.0 → (3월) 78.4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1월) -2.4 → (2월) -1.9 → (3월) -7.9
- 공급예비력은 9.6GW, 전력공급예비율은 12.3%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¹⁵⁾
 - 공급예비력(GW): ('26.1월) 15.6 → (2월) 11.1 → (3월) 9.6
 - 공급예비율(%): ('26.1월) 17.7 → (2월) 12.5 → (3월) 12.3

| 그림 11 | 전력 수급 안정성 지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5)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그림 12 | 전력시장 주요 가격 지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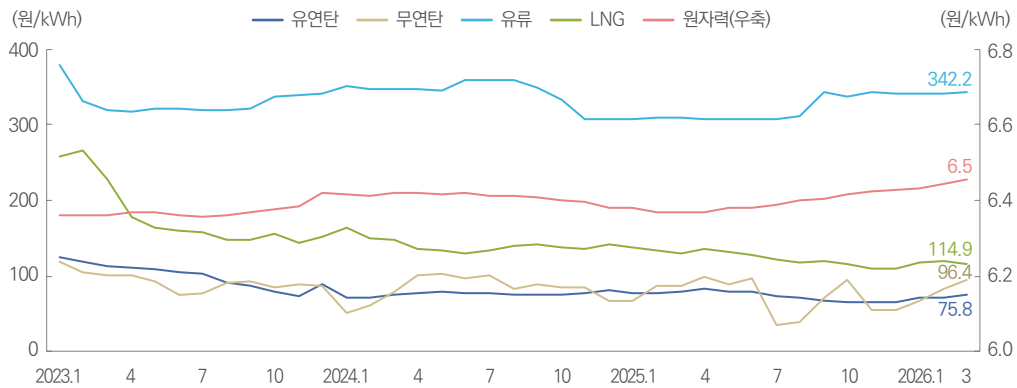


주: 가격지표 변동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3월 「연료비단가」는 LNG가 하락하고 원자력과 유류가 상승하였으며, 2월 「전력도매 가격(SMP)」, 「정산단가」, 「판매단가」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 3월 발전사가 연료 공급사로부터 구입한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는 전년동월대비 유연탄, LNG는 하락한 반면, 원자력, 무연탄, 유류는 상승
 - 연료비단가(원/kWh): (원자력)6.5, (유연탄)75.8, (무연탄)96.4, (유류)342.2, (LNG)114.9

| 그림 13 |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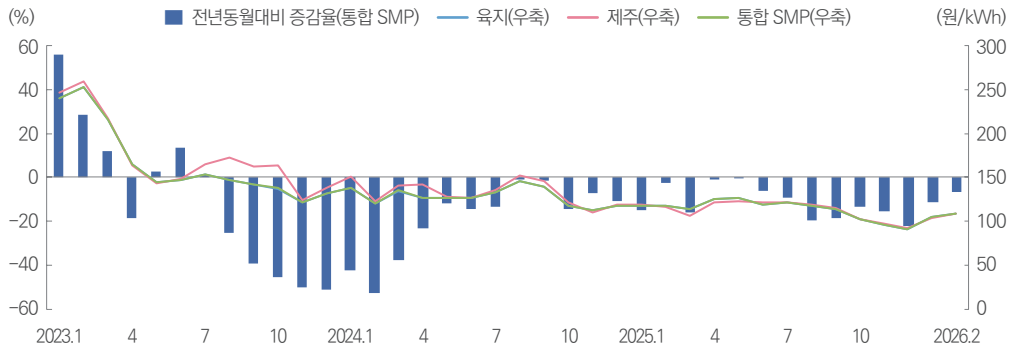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2월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시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kWh당 108.5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6.8% 하락¹⁶⁾

- 통합 SMP(원/kWh): ('25.12월) 90.44 → ('26.1월) 103.53 → (2월) 108.52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2월) -22.4 → ('26.1월) -11.6 → (2월)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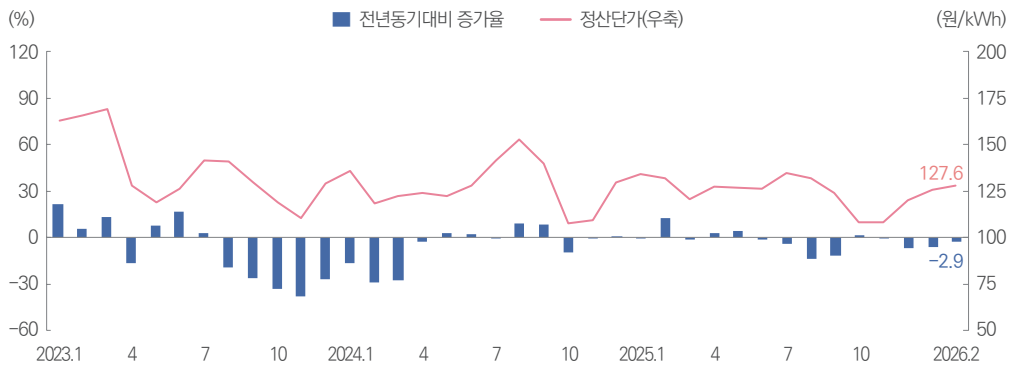
| 그림 14 | 계통한계가격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2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kWh당 정산단가는 127.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하락
- 정산조정계수 상승으로 인해 계통한계가격(시장 도매가격)의 하락폭(-6.8%)에 비해 정산단가의 하락폭(-2.9%)이 상대적으로 둔화됨
- 정산단가(원/kWh): ('25.12월) 119.6 → ('26.1월) 125.1 → (2월) 127.6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12월) -7.5 → ('26.1월) -6.8 → (2월) -2.9

| 그림 15 | 정산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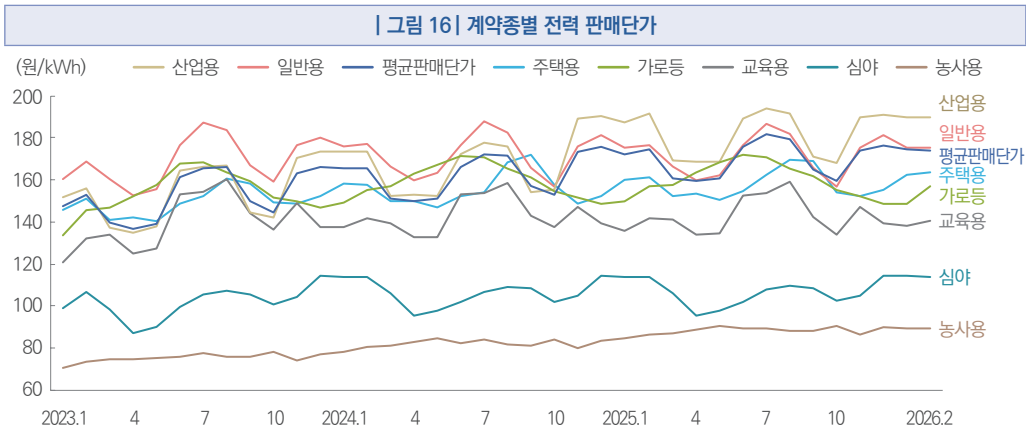
주: 정산단가 = (거래금액 - RPS의무이행비용 - 예측제도정산금) ÷ 거래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6)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은 발전용 열량단가 산정 시차로 인하여 5월 이후 반영 예정

• 2월 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받은 kWh당 평균 판매단가는 173.9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하락

- 판매단가는 단가가 높은 산업용 수요 감소¹⁷⁾의 영향으로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 판매단가(원/kWh): ('25.12월) 176.7 → ('26.1월) 174.6 → (2월) 173.9
- 판매단가(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25.12월) 0.6 → ('26.1월) 1.2 → (2월) -0.4
- 1월~2월 누적 판매단가: 174.2원/kWh(전년 동기간 대비 0.4% 상승)
- 계약종별 kWh당 판매단가는 산업용(190.1원)은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 일반용(175.1원)은 0.7% 하락, 주택용(163.4원)은 1.3% 상승
- 산업용 판매단가(원/kWh): ('25.12월) 191.1 → ('26.1월) 190.1 → (2월) 190.1
- 일반용 판매단가(원/kWh): ('25.12월) 181.7 → ('26.1월) 175.4 → (2월) 175.1
- 주택용 판매단가(원/kWh): ('25.12월) 155.2 → ('26.1월) 162.2 → (2월) 163.4



주: 일반용은 주택, 산업용 등 타 종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및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17) 2월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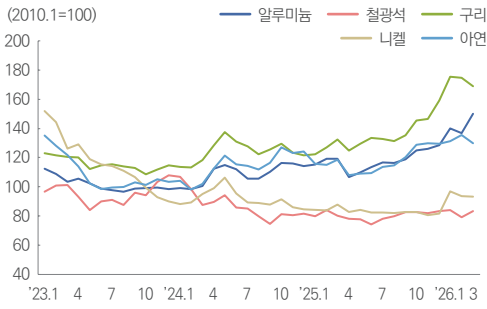
2

비철금속

■ 2026년 3월 「비철금속」 가격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

- 비철금속 가격은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공급 리스크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23.0% 상승
 - 비철금속 가격지수(2010=100): ('26.1월) 138.0 → (2월) 135.7 → (3월) 137.6
 - 비철금속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1월) 30.2 → (2월) 23.8 → (3월) 23.0
- 알루미늄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류-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전월대비 10.0%, 전년동월대비 26.9% 상승¹⁸⁾
 - 알루미늄 가격(달러/톤): ('26.1월) 3,142 → (2월) 3,065 → (3월) 3,373
 - 알루미늄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22.1 → (2월) 15.3 → (3월) 26.9
- 철광석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전월대비 5.7%, 전년동월대비 4.3% 상승
 - 철광석 가격(달러/톤): ('26.1월) 106 → (2월) 99 → (3월) 104
 - 철광석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6.0 → (2월) -5.9 → (3월) 4.3
- 구리는 재고 급증, AI-전력 수요 기대에 따른 가격 급등 후 차익 실현, 중국 부동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3.3%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28.6% 상승
 - 구리 가격(달러/톤): ('26.1월) 13,012 → (2월) 12,951 → (3월) 12,529
 - 구리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44.7 → (2월) 38.8 → (3월) 28.6
- 니켈은 인도네시아의 공급 확대, LFP 배터리 확대에 따른 니켈 수요 둔화 등으로 전월대비 0.6%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6.3% 상승
 - 니켈 가격(달러/톤): ('26.1월) 17,769 → (2월) 17,173 → (3월) 17,076
 - 니켈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15.4 → (2월) 12.3 → (3월) 6.3
- 아연은 글로벌 정련 생산 확대 및 수요 둔화로 전월대비 4.3%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10.1% 상승
 - 아연 가격(달러/톤): ('26.1월) 3,213 → (2월) 3,324 → (3월) 3,182
 - 아연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14.0 → (2월) 18.7 → (3월) 10.1

| 그림 17 | 비철금속 가격 추이



| 표 4 | 비철금속 가격 동향

구분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3월	1월	2월	3월		
알루미늄	2,658	3,142	3,065	3,373	26.9	10.0
철광석	100	106	99	104	4.3	5.7
구리	9,740	13,012	12,951	12,529	28.6	-3.3
니켈	16,066	17,769	17,173	17,076	6.3	-0.6
아연	2,889	3,213	3,324	3,182	10.1	-4.3

(단위: 달러/톤, %)

자료: 세계은행, LME

18) 중동지역은 글로벌 알루미늄 제련 능력의 9%를 차지하며, 이번 사태로 중동지역의 일부 알루미늄 제련소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음(Reuters, Apr.2)

[Box 2] 희토류 가격 및 수입 동향

■ (정의) 희토류는 주기율표상 3족인 스칸듐(Sc), 이트륨(Y)과 란타넘계 원소 15종 등 총 17종의 원소를 지칭

- 희토류는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경희토류(Light REE)와 중희토류(Heavy REE)로 나뉘며, 중희토류는 경희토류에 비해 부존량이 적고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으며 우주·국방·첨단무기 제조 등에 사용됨

■ (용도) 고유한 화학적, 금속적, 전자기적 특성으로 인해 전자·화학분야에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첨단산업 및 친환경 산업의 핵심 재료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희토류는 자석(2019년 중량기준, 29%), 촉매제(21%), 연마제(13%), 합금(8%), 유리(8%), 배터리(7%), 세라믹(4%) 등에 활용됨

희토류 원소별 응용분야

자석 Nd, Dy, Sm (Tb, Pr)	합금 La, Ce, Pr, Nd, Y	형광체 Eu, Y, Tb, Nd, Er, Gd	촉매&화학 La, Ce (Pr, Nd)	세라믹&유리 Ce, La, Pr, Nd, Gd, Er	기타
모터, 제너레이터, HDD, 마이크, 스피커, MRI, 방위산업, 가전제품 등	Ni-MH 배터리, 초합금, Al-Mg합금, 철강	LED, 레이저, 디스플레이, X레이 이미지, 광학센서	FCC 촉매, 자동차 촉매, 경유 첨가제	연마제, UV차단유리 내열유리, 센서, 콘덴서 등	비료, 의료용 물질, 착색제 등

자료 : EURARE(www.eurare.org), 김경훈·박가현(2021)

- 영구자석의 주요 원료인 네오디뮴(Nd)과 프라세오디뮴(Pr)은 전체 희토류 시장가치 (2019년 기준)의 75%, 중량의 20%를 차지
-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은 강한 자력을 지녀 전자제품의 소형화, 경량화를 구현 하는데 활용되며, 전기차 구동모니터, 풍력발전기의 터빈, 로봇, 드론 등 첨단산업 뿐 아니라 하드디스크, 에어컨, 스마트폰, 스피커 등 가전제품에도 널리 활용됨

■ (매장량과 생산량) 중국이 세계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에서 높은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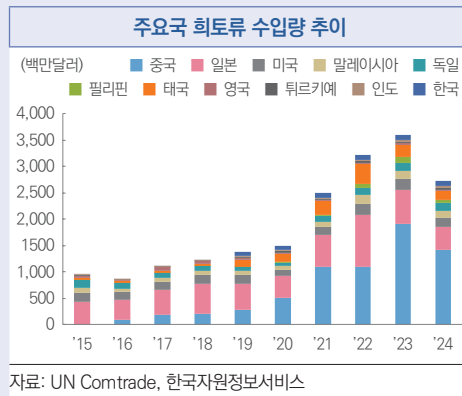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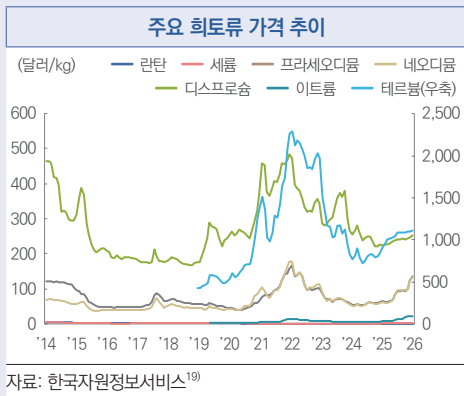
-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발간한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9,000만 톤으로, 이 중 절반은 중국에 분포하고 브라질, 인도 등 순으로 추정됨
- 2024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39만 톤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2024년 약 27만 톤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9%를 차지하며 이밖에도 미얀마, 미국, 호주, 나이지리아 등이 희토류 생산

■ (가격) 2022년 정점 이후 하락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반등세를 보임

-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가격은 2026년 kg당 각각 115.6, 115.7달러로 2024년 대비 약 2배 상승

■ (주요 수입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 세계 희토류 수입액은 2024년 29.5억 달러로, 중국 14.06억 달러(47.7%), 일본 4.38억 달러(14.9%), 미국 1.75억 달러(5.9%), 독일 1.42억 달러(4.8%), 말레이시아 1.33억 달러(4.5%) 순이며 한국은 0.91억 달러(3.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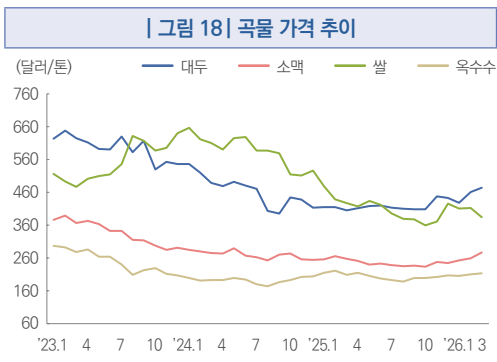


19)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광물자원가격,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MinorMetals>, 접속: 2026.3.18.>

3 곡물

■ 2026년 3월 「곡물」 가격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²⁰⁾

- 곡물 가격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대두와 소맥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7%, 전년 동월대비 5.1% 상승
 - 곡물 가격지수(2010=100): ('26.1월) 111 → (2월) 113 → (3월) 117
 - 곡물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1월) -3.0 → (2월) -0.3 → (3월) 5.1
- 옥수수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디젤 수요 확대 기대감, 브라질의 판매 보류 및 국내 수급 우선 대응 등으로 전월대비 1.5%,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옥수수 가격(달러/톤): ('26.1월) 204 → (2월) 210 → (3월) 213
 - 옥수수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4.6 → (2월) -5.1 → (3월) 2.5
- 대두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디젤 수요 확대 기대감 등으로 전월대비 2.9%, 전년동월 대비 17.8% 상승
 - 대두 가격(달러/톤): ('26.1월) 425 → (2월) 459 → (3월) 473
 - 대두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3.3 → (2월) 11.5 → (3월) 17.8
- 소맥의 경우 비료공급 차질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미국 겨울밀 주산지의 가뭄에 따른 생육 저하 가능성 등으로 전월대비 7.1%, 전년동월대비 8.0% 상승
 - 소맥 가격(달러/톤): ('26.1월) 250 → (2월) 258 → (3월) 276
 - 소맥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1.6 → (2월) -2.7 → (3월) 8.0
- 쌀의 경우 인도산 쌀에 대한 서아프리카의 수요 부진 및 중동향 수출 지연, 태국산 쌀의 이라크항 선적 차질, 겨울/봄 작기 수확 개시에 따른 공급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6.8%, 전년동월대비 10.4% 하락
 - 쌀 가격(달러/톤): ('26.1월) 408 → (2월) 409 → (3월) 381
 - 쌀 가격(전년동월대비, %): ('26.1월) -14.6 → (2월) -6.4 → (3월) -10.4



자료: 세계은행, CME

구분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3월	1월	2월	3월		
옥수수	207	204	210	213	2.5	1.5
대두	401	425	459	473	17.8	2.9
소맥	255	250	258	276	8.0	7.1
쌀	425	408	409	381	-10.4	-6.8

자료: 세계은행, CME

20)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2026.4.

IV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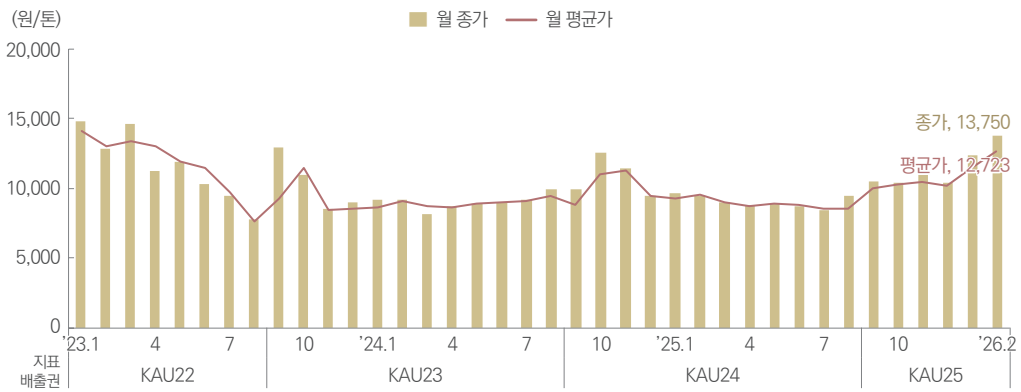
1

배출권거래²¹⁾

■ 2월 「지표배출권(KAU25)」의 전월대비 평균가와 증가는 모두 상승

- KAU25²²⁾ 평균가는 톤당 12,723원으로 전월(11,453원) 대비 1,270원 상승
 - 정부의 배출권 시장 정상화 의지 및 유상할당 강화, 할당량 축소·MSR 정책 기대²³⁾ 등 공급 축소 신호로 가격이 상승
 - KAU25 평균가(원/톤): ('25.12월) 10,207 → ('26.1월) 11,453 → (2월) 12,723
- KAU25 증가는 톤당 13,750원으로 전월(12,400원) 대비 1,350원 상승
 - KAU25 증가(원/톤): ('25.12월) 10,400 → ('26.1월) 12,400 → (2월) 13,750
- KAU25의 최저가는 톤당 11,950원('26.2.6), 최고가는 13,750원('26.2.27)을 기록

| 그림 1 | 배출권 장내가격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21)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은 ① 할당 배출권(KAU) ② 상쇄배출권(KCU)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구분되며 「NABO 산업동향&이슈」에서는 주요 배출권인 할당 배출권인 KAU를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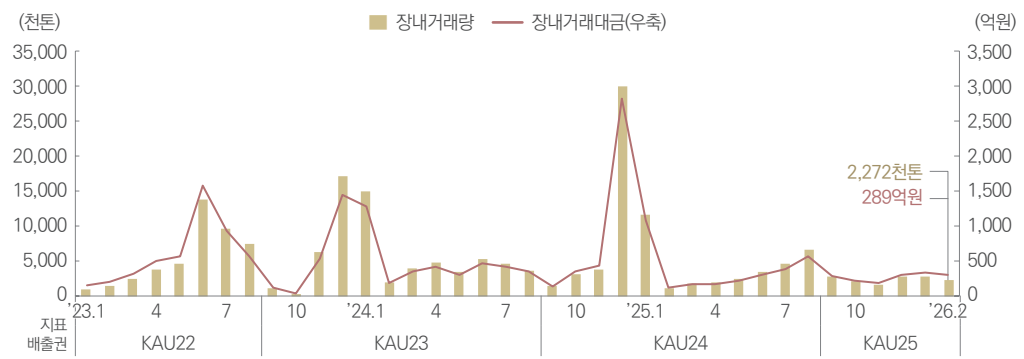
22) 배출권거래제에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이며, 1KAU는 이산화탄소(CO₂) 1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의미. KAU 뒤에 붙는 숫자는 해당연도의 탄소배출권을 나타냄

23) MSR(Market Stability Reserve, 시장안정화조치)은 배출권 시장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내 유통 물량을 흡수 비축하는 제도로, 시중 공급량이 감소할 경우 배출권의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 2월 「지표배출권(KAU25)」의 전월대비 거래량은 감소한 반면, 거래대금은 증가

- KAU25의 거래량은 3,472천톤으로 전월대비 341천톤 감소
 - KAU25 거래량(천톤): ('25.12월) 8,049 → ('26.1월) 3,813 → (2월) 3,472
- KAU25의 장내거래량은 2,272천톤, 유상할당(경매)량은 1,200천톤이며, 장외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음
 - KAU25 장내거래량(천톤): ('25.12월) 2,839 → ('26.1월) 2,813 → (2월) 2,272
- KAU25의 거래대금은 441억원으로 전월대비 12억원 증가
 - KAU25 거래대금(억원): ('25.12월) 837 → ('26.1월) 429 → (2월) 441
- KAU25의 장내거래대금은 289억원, 유상할당(경매) 대금은 152억원이며, 장외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음
 - KAU25 장내거래대금(억원): ('25.12월) 290 → ('26.1월) 322 → (2월) 289

그림 2 | 배출권 장내 거래량 및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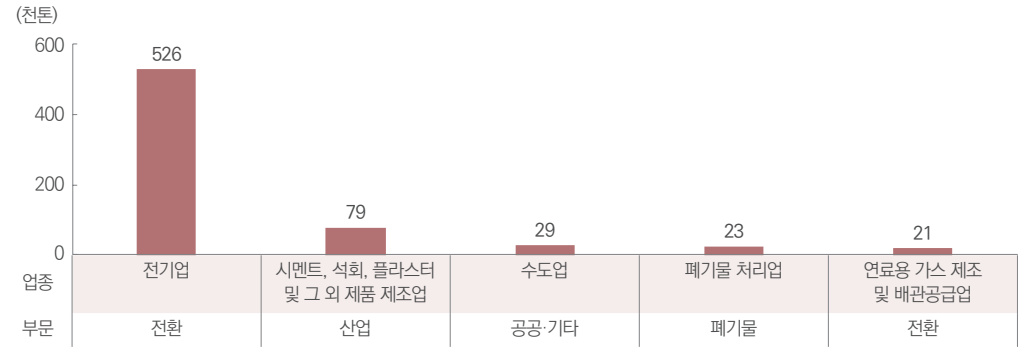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2월 업종별 장내거래 최대 매수업은 전기업, 최대 매도업은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①전기업, ②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③수도업 순
- 업종별 매수량(천톤): 전기업(526),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79), 수도업(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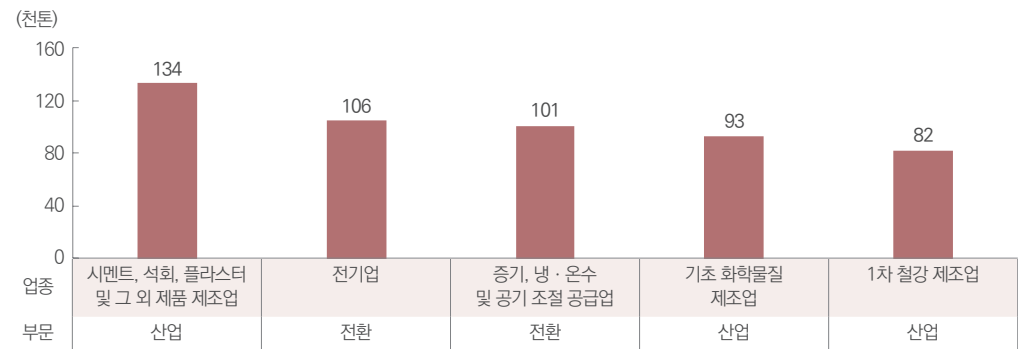
| 그림 3 | 매수 상위업종



주: KAU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매도 상위 3개 업종은 ①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②전기업, ③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순
- 업종별 매도량(천톤):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134), 전기업(106),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101)

| 그림 4 | 매도 상위업종



주: KAU24, 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2 재활용가능자원

■ 3월 조사일²⁴⁾ 기준 「국내 폐지」 평균가격은 폐신문지와 폐골판지 모두 하락

- 폐신문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3원 하락하여 124.7원
 - 폐신문지(원/kg): ('26.1월) 125.9 → (2월) 125.0 → (3월) 124.7
- 폐골판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0원 하락하여 81.5원
 - 폐골판지(원/kg): ('26.1월) 81.6 → (2월) 82.5 → (3월) 81.5

■ 3월 조사일 기준 「국내 폐플라스틱」 평균가격은 PET 압축과 PP(플레이크)는 상승한 반면, EPS 잉고트와 PP(펠릿)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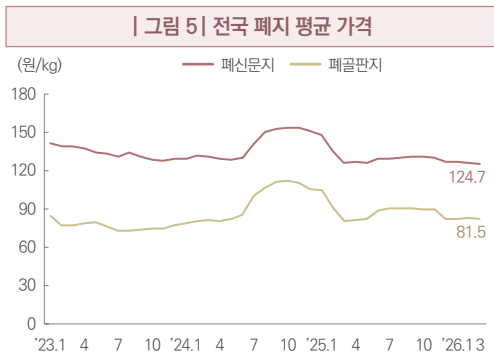
- PET²⁵⁾ 압축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6.7원 상승하여 436.3원
 - 봄철 진입으로 음료·생수 등 계절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PET병 수요가 확대되었고, 이에 재활용 원료인 압축 PET 수요도 함께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함
 - PET 압축(원/kg): ('26.1월) 390.3 → (2월) 419.6 → (3월) 436.3
- PP²⁶⁾ 플레이크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4.0원 상승하여 461.7원
 - PP 플레이크(원/kg): ('26.1월) 453.3 → (2월) 457.7 → (3월) 461.7
- PP 펠릿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5.9원 하락하여 713.4원
 - PP 펠릿(원/kg): ('26.1월) 712.7 → (2월) 719.3 → (3월) 713.4
- EPS²⁷⁾ 잉고트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6.3원 하락하여 512.9원
 - 국내 건설경기 부진으로 단열재 수요가 감소하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판로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 EPS 잉고트(원/kg): ('26.1월) 528.5 → (2월) 519.2 → (3월) 512.9

24) 한국환경공단은 매월 10일 5종 26개 품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행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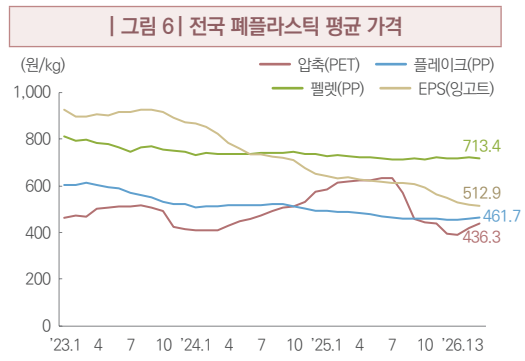
25)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은 무색이며 단단하고 충격에도 비교적 강한 플라스틱으로 음료수병, 생수병 등으로 활용

26) PP(Polypropylene)는 가벼우며,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으로 주류, 음료 상자 등으로 활용

27) EPS(Expanded Polystyrene)는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한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 제품으로 흔히 스티로폼(상품명)이라 부르며 단열재, 전자제품, 식품 포장 등으로 활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3월 조사일 기준 「폐유리병」 평균가격은 백색과 갈색이 하락하고 청록색은 상승

- 유리병(백색) 컬렛²⁸⁾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7원 하락하여 137.4원
 - 유리병(백색) 컬렛(원/kg): ('26.1월) 139.4 → (2월) 141.1 → (3월) 137.4
- 유리병(갈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8원 하락하여 79.1원
 - 유리병(갈색) 컬렛(원/kg): ('26.1월) 79.5 → (2월) 79.9 → (3월) 79.1
- 유리병(청록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8원 상승하여 45.9원
 - 유리병(청록색) 컬렛(원/kg): ('26.1월) 47.1 → (2월) 45.1 → (3월) 45.9

■ 3월 조사일 기준 「페타이어(고무분말)」 평균가격은 상승

- 페타이어(고무분말)²⁹⁾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0원 상승한 272.5원
 - 페타이어(고무분말, 원/kg): ('26.1월) 282.2 → (2월) 271.5 → (3월) 2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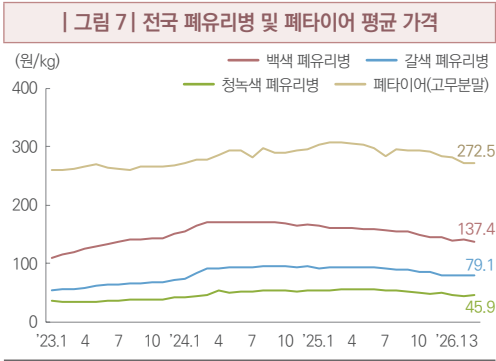
■ 3월 조사일 기준 「폐금속」 평균가격은 철스크랩과 철캔이 상승한 반면, 알루미늄캔은 하락

- 철스크랩³⁰⁾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6.1원 상승하여 334.6원
 - 철스크랩(원/kg): ('26.1월) 308.1 → (2월) 328.5 → (3월) 334.6
- 철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1원 상승하여 347.7원
 - 철캔(원/kg): ('26.1월) 315.8 → (2월) 345.6 → (3월) 347.7
- 알루미늄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47.0원 하락하여 3,094.8원
 - 알루미늄캔(원/kg): ('26.1월) 2,901.3 → (2월) 3,141.8 → (3월) 3,0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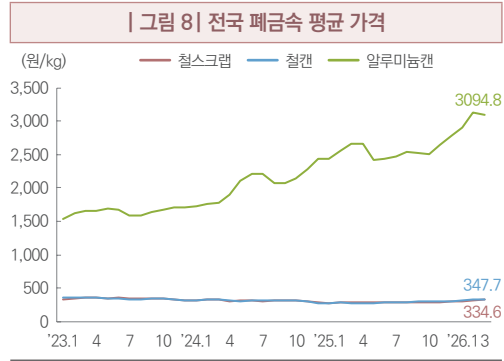
28) 컬렛(Cullet)은 유리병을 일정 크기로 파쇄한 상태

29) 페타이어를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재활용 소재

30) 사용 후 폐기된 철강 제품이나 철을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고철이라고도 함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산업 이슈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국내 현황 분석

산업자원분석과 | 김윤희 분석관

1

검토 배경 및 분석 목적

가. 검토 배경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파리협정 체결(2015년)을 계기로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E·S·G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

-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87년 UN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발전”으로 최초 정립됨
 - 2015년 UN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하고, 3대 핵심축(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포용성, 환경적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 행동’(SDGs 13번)의 일환으로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으며, 각국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탄소중립(Net Zero) 선언을 통해 파리협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195(194개국+EU) 당사국이 참여 중이며, 각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보조금,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¹⁾ 중심으로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전환됨
 - 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탄소 감축 기조는 국내 활동 기업에는 직접 감축 의무를, 수출 기업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 탄소 배출 공개(Scope 3)를 요구²⁾

1) ESG는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UN 보고서에 최초 인용·보편화됨, UN Global Compact, etc.,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New York: United Nations, 2004.6.

2) 예를 들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6.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산업의 국내 수출 기업들(약 1,850개, 관세청 집계)도 제품별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여 EU 내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그림 1 | SDGs 파리협정-ESG 경영의 연결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대로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이 정립되고, 주요국의 ESG 공시 제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됨

- 특히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확대 등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실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주요국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점진적으로 시행 중
 -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³⁾ 및 스투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⁴⁾에 기반한 ESG 통합 투자가 자본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음⁵⁾
 - EU는 2026년(2025년 회계연도, FY25)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기반 공시 의무화를 시작으로, FY27부터 일정 매출 이상의 역외기업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 일본은 '25.3월 기준 확정, '27.6월부터 시가총액 3조 엔 이상 프라임 기업의 의무화 추진
- 최근 국가 간 비정형화된 ESG 공시 체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이 정립되고, 국제표준으로의 통합화가 진행 중
 -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5년 설립한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TCFD)⁶⁾를 기점으로, 국제 금융감독 기구들이 기후 공시 관련 기준을 통합·준거함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TCFD를 통합하여 글로벌 표준을 수립('23.6월),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공시 기준을 마련('26.2월)

나. 분석 목적

■ 우리나라도 ESG 공시기준 확정 및 로드맵 제시('26.2월, 정부안)로 기후 공시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에 따라, ESG(기후, 지속가능) 공시의 유효성 및 제도에 대한 점검·평가 필요

- KOSPI 상장사의 ESG 공시기준(KSSB)이 확정되고 로드맵(안)이 발표되어('26.2월), 2028년 (FY27) 기업활동부터 적용

3) 자산운용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의무로, ESG 리스크 관리가 핵심 요소임

4)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규범

5) Bloomberg Intelligence, 「ESG Assets May Surpass \$53 Trillion by 2025」, 2021.2.

6) 2015년 FSB가 설립한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로,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리스크와 기회를 공시하도록 권고함. 현재는 ISSB의 공시 표준(IFRS S1·S2)으로 2023년 6월에 흡수 통합됨

- ESG 공시 관련 기준 확정·로드맵 제시로 공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활성화 목표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ESG 공시 의무화 이전 현재 상장기업 중 어떤 기업이 어떤 요인으로 공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공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미흡
 - 업종·규모에 따라 ESG 공시 의무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실증 분석 부재
 - 기관투자자·탄소규제 등 ESG 공시의 유인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규명 미흡
- 본 연구는 ESG 공시 의무화 현황 및 관련 쟁점 분석을 토대로 제조업·수출 중심 국내 기업에 적합한 제도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ESG 공시의 국내의 동향 및 현황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
 - 2025년 기준 KOSPI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ESG 공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
 - 국내외 현황 점검 및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SG 공시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표 1 | ESG 공시('26.2월, 정부안) 주요 내용

공시 시기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시작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 첫해, 국내외 중속회사(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는 연결대상 제외된 공시 허용 - 2029년(FY28)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시작 - 공시 대상의 확대 및 시기는 추후 검토
공시 범위 (Scop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공시 3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해외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우선 공시 면제 후 추후 법정공시 전환시 면제범위 재검토
공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ISSB 기준을 기반으로 제정 - 국내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 완화
공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된 핵심요소에 따라 위험·기회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기업이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방법 · (전략)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안,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 관련 정보 · (위험 관리) 위험 식별 프로세스 등 기업이 해당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방법 · (지표 및 목표)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와 기업의 달성 정도
공시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 공시로 우선 도입(한국거래소) -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 공시 전환(「자본시장법」)
이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파일럿 테스트 운영, 교육 등 공시이행 지원 - 관계부처 합동 Scope 3 관련 산정·추정 인프라 구축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6.2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ESG 공시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

가. 국제 동향

■ 주요국의 ESG 공시 동향을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Scope 정보 공개 정도 등에 따라 시행 선도, 시행 유연, 시행 유보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 (시행 선도) ESG 공시 의무화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유하는 등 ESG 공시에 선도적인 국가: EU, 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
 - EU는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CSRD)에 따라 ISSB와 상호운용성을 갖춘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 (ESRS)을 적용하여 '25년(FY24)부터 대기업 공시를 의무화함(독일 등 일부 제조업 중심 국가는 관련 법제화 지연)⁷⁾.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옴니버스 패키지'(26.3월)⁸⁾ 발효로 '28년(FY27)으로 의무를 2년 유예⁹⁾
 - 호주는 '24.9월 기준 확정, 2026년(FY25)부터 대기업(Group 1) 의무화를 시작하고 2028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확대를 함. 특히 Scope 3에 대해 3년간 면책(Safe Harbor)을 부여하여 실무적 안착을 지원
 - 일본은 '25.3월 기준 확정 후 FY26부터 의무화를 추진하며, 시총 3조 엔 이상 대기업(68개사)부터 시작하여 2029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선별적·단계적 접근 방식 채택
 - 싱가포르는 FY25부터 지수 상위 30개사 대상 Scope 1:2 의무를 시작으로 2027년 Scope 3 추가, 2028년 외부 보증 의무화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로드맵 보유¹⁰⁾
 - 홍콩은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 Scope 1:2 의무화, 라지캡¹¹⁾ 기업은 2027년(FY26)부터 Scope 3 포함 전면 의무화하며, 중소상장사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¹²⁾ 방식 적용

7) EU에 본사를 둔 대규모 상장 기업은 2025 회계연도부터 의무 보고를 계속하는 상태이므로 독일의 대형 상장 제조기업(바스프, 지멘스, BMW 등)은 이미 FY24 기준 2025년에 공시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임. 다만 CSRD는 EU 지침(Directive)이므로 각 회원국이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독일은 이 전환 작업이 지연된 상태

8) EU는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CSRD), 지속가능성 실사(CSDDD), EU 탄소노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25.2월) 하여 당초 계획('24~'26 단계적 확대)보다 시행 일정이 유예되고 적용 대상도 축소됨

9) EU는 자본시장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상장 대기업(Wave 1, 기존 NFRD 적용 기업)을 중심으로 공시를 시행 중. '옴니버스 패키지'의 2년 공시 연기(Stop the Clock)는 주로 Wave 2(CSRD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비상장 대기업, Wave 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 및 Wave 3(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및 비복잡 금융기관 등) 기업의 공시 일정을 2년 연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는 특히 비상장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10)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와 기업규제국(ACRA)이 2025년 8월 발표한 '기후 공시 이행기한 연장(Extended Timelines)' 조치에도 불구하고, STI 지수 구성 기업(STI 30개 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약 80%)에 대한 스코프 3 의무화 일정(FY26)은 변함없이 유지됨, ACRA & SGX RegCo, "Extended Timelines for Most Climate Reporting Requirements to Support Companies," Joint Media Release, August 25, 2025.

11) 라지캡(Large Cap)은 시가총액 기준 대형 상장사를 의미

12)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은 기업이 규정된 공시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규제 방식임

- (시행 유연) 공시의 표준(Standard)은 마련했으나, 기업의 수용성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 시행 시점을 신중히 조절하는 국가: 영국, 중국
 - 영국은 2026년에 기준(UK SRS)을 확정하였고 2028년(FY27)부터 의무화 예정, Scope 3는 도입 2년 차부터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을 적용하여 연착륙을 유도¹³⁾
 - 중국의 자체 기준(CSDS) 수립은 완료('25.12월) 되었으나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은 미정. 다만, 3대 주요 거래소(상하이, 선전, 베이징)가 자체 지침을 통해 부분적으로 의무화를 이미 선행 중
- (시행 유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했으나, 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 않거나 시행 정지된 단계의 국가: 캐나다, 미국
 - 캐나다는 2024년 12월 ISSB 기반 자율공시 기준 수립을 완료했으나, 상장사 대상 의무화 로드맵은 현재 미확정 상태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¹⁴⁾
 - 미국 SEC는 2024년 기후공시 규칙을 확정했으나, 법적 분쟁(소송)으로 인해 현재 시행이 유보된 상태. 캘리포니아 등 미국 경제의 57%를 차지하는 24개 주는 '미국 기후 동맹'을 통해 연방 정부의 결정과 별개로 기후 대응 및 공시 활동 지속

■ ESG 공시 기준, 적용 대상, Scope 3 등에 대한 국제 동향의 컨센서스(Consensus)는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국가가 글로벌 기준(ISSB)을 자국 공시 시스템의 기반으로 삼고 있어, 한국의 KSSB도 이와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유리
- 대기업 우선 원칙으로 모든 국가가 자산 규모나 시가총액이 큰 '라지캡' 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단계를 가짐(이후 비상장, 역외기업 등으로 확대)
- 대부분의 국가가 공급망 탄소 배출 공개(Scope 3)¹⁵⁾ 공시 시점을 Scope 1·2보다 1~2년 늦추거나, '면책(호주)' 또는 '준수 또는 설명(영국·홍콩)'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

13) 영국이 홍콩과 비교하여 시행유연으로 분류된 이유는, 홍콩은 이미 HKEX 거래소 규칙이 확정되어 2025년부터 라지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Scope 1·2 의무 보고가 시행 중인 반면, 영국의 기준(UK SRS)은 2026년 2월 확정되었으나 의무화 규칙 자체가 아직 컨설팅 단계이기 때문임(금융행위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2026년 1월 30일 컨설팅을 게시하였으며, 최종 규칙은 2026년 가을 발표 예정이고 2027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Scope 3의 경우 홍콩은 라지캡 기준 2027년(FY26) 의무화를 추진 중인 반면, 영국은 2028년부터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4) 캐나다 증권감독국인 CSA는 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기후 및 다양성 공시 관련 의무화 규정 개발 작업을 일시 중단(pause)한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국내외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향후 해당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여 최종 요건을 확정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음

15) Scope 1은 기업의 직접 배출, Scope 2는 전력 소비 등 간접 배출, Scope 3은 가치사슬 전반의 기타 간접 배출

| 표 2 | 주요국 ESG 공시 현황 비교

구분	2026 (FY25)	2027 (FY26)	2028 (FY27)	2029 (FY28)	2030 (FY29)	2031~	공시채널			기준 제정	Scope 3 배출량 공시	이행지원	
							보고	법적 근거	재무 제표내			재정지원 형태	담당 기관
EU 20주 ¹⁾	상장 대기업	→ '25.1월 시작(FY24, ESRS 기준)					연차 보고서	회계 지침	의무	'23.7월 완료 (CSRD)	0	-	기준 제정 기구
	EU소재 비상장 대기업	옴니버스 패키지로 2년 유예	→ '28.1월 시작										
	EU소재 중소기업 및 EU활동 역외기업	중소기업 기준 완화 (250명 이하 면제 → 1천명 이하 면제)											
주 하	그룹1(대기업 및 온실가스다배출)	→ '26.1월 시작(FY25)					연차 보고서	기업법	의무	'24.9월 완료 (완화된 ISSB)	0 (첫해 면제)	-	기준 제정 기구
	그룹2	→ '27.6월 시작											
	그룹3	→ '28.6월 시작											
시 행 전 내	프 라 임 상 장 사	시총 3조엔 이상(누적 68개사, 4%)	→ '27.6월 시작(FY26)			연차 보고서 (유가 증권 중권 보고서)	금융 상품 거래법	의무	'25.3월 완료 (ISSB 기반)	0 (첫해 면제)	-	기준 제정 기구	
		시총 1조엔 이상(누적 171개사, 10%)	→ '28.6월 시작(FY27)										
		시총 5천억엔 이상(누적 282개사, 17%)	→ '29.6월 시작(FY28)										
	기타 프라이م 전체 상장기업	→											
상 가 포 트	상장기업	→ '26.1월 시작(FY25, ISSB 기준)					연차 또는 별도 보고서	상장 규정	선택	'24.9월 완료 (ISSB 기반)	STI만 의무 (첫해 면제) 추후논의	첫보고서 작성비용 지원	관할 당국
	비상장대기업	→ '28.1월 시작(ISSB 기준)											
해 편	항생라지킵 상장사, 메인보드상장사, 성장기업시장 상장사	→ '27.1월 시작(FY26, ISSB 기준)					연차 또는 별도 보고서	상장 규정	선택	'24.4월 완료 (ISSB 기반)	라지킵 (119사)만 의무(첫해 면제)	-	관할 당국
시 행 유 외 지	영국	→ '28.1월 시작 (FY27, ISSB 기준)					연차 보고서	기업법 /상장 규정	의무	'26.2월 완료 (ISSB 기반)	COE 요구 (미준수시 사유, 향후 공시계획 기술)	-	-
	중국	전체 의무화 시기는 미정 (3대 거래소에서 정한 기후 공시 기준에 따른 공시는 의무화)					미제시	미정	미정	'25.12월 완료 (ISSB 기반)	0 (추후 도입 가능성 존재)	-	-
시 행 유 외 지	캐나다	의무화시기 미정					연차 보고서 주 ²⁾	미정	미정	'24.12월 완료 (ISSB 기반)	0 (도입후 3년유예)	-	-
	미국	시행 정지 상태					연차 보고서	SEC 규정	의무	SEC기준 발표 후 보류	제외 (보류전 기준)	-	-
내 국	K O S P I	연결자산총액 ≥30조원	→ '28.1월 시작(FY27)			미정 (거래소 공시 → 법정 공시)	미정	의무	'26.2월 (안)발표 (ISSB 기반의 KSSB)	0 (도입후 3년유예)	스콥3 보고 기업 인센티브 (안)	기준 제정 기구	
		연결자산총액 ≥10조원	→ '29.1월 시작(FY28)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의무화시기 미정										
	KOSPI 비상장사	의무화시기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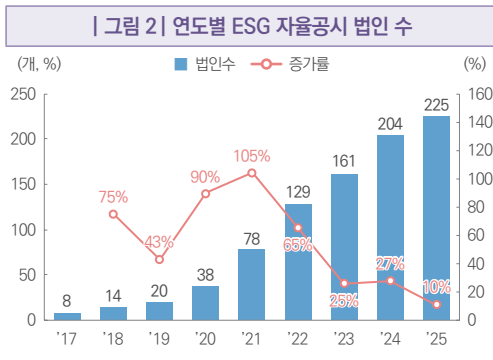
주: 1)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몰타, 포르투갈은 CSRD 자국 내 법제화(전환) 진행 중(EU 옴니버스 패키지 개정으로 인해 지연됨)

2) 캐나다는 로드맵 미발표 상황으로 법적 근거는 없으나, CSSB 기준('24.12월 승인)에서는 공시위치를 '일 반복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 지정하고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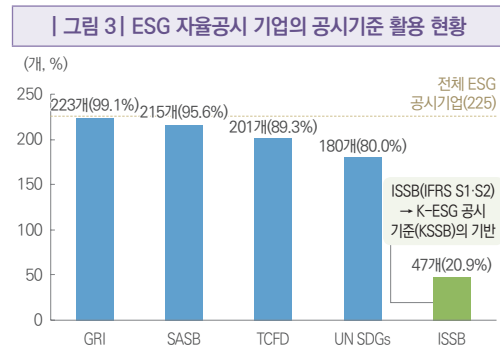
나. 국내 동향

■ 국내 ESG 공시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여러 공시 기준이 혼재되어 활용됨에 따라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2015년까지 ESG를 자율 공시한 상장회사 수는 '21년 78사 → '23년 161사 → '25년 225사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율은 '21년 이후로 둔화
 - 아직 국내 기업들은 ESG 공시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따르는 업무로 인식¹⁶⁾
 - ESG 공시에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와 그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 및 재무계획, 리스크 관리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등이 포함
 - 2025년 기준 공시 법인수 225개사는 KOSPI 전체 상장사(819개사)의 약 27.5% 수준으로, 여전히 72.5% 이상의 기업이 자율공시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ESG 보고서를 공시한 225개사가 참고한 ESG 공시 기준의 현황을 보면 GRI·SASB·TCFD 기준이 대부분임. 글로벌 표준인 ISSB 기반 의무공시 체계로의 전환 필요¹⁷⁾
 - 전체 기업의 99.1%(223개사) GRI를 ESG 공시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해 왔으며 다수의 기업이 SASB·TCFD¹⁸⁾ 등 여러 기준을 중복해서 표기
 - 80.0%(180개사)의 기업이 UN SDGs 관련 활동도 추가로 공개함에 따라 ESG 공시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 공시가 보편화된 상황
 - ISSB(IFRS S1·S2, '23.6월 확정)는 한국형 ESG 공시 기준(KSSB)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률이 47개사(20.9%)로 저조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KOSPI 819개사중 225사, 2025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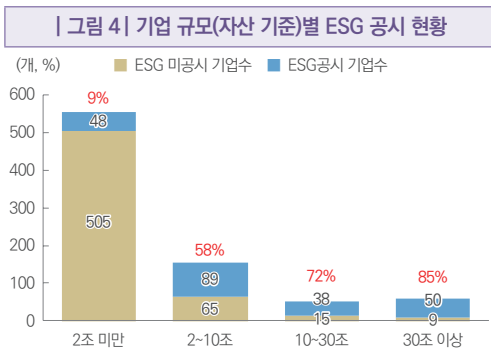
1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21.11.

17)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기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 위원회) 기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TF) 프레임워크,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S2(기후 관련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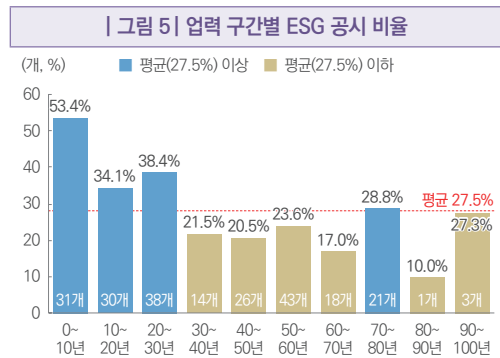
18) SASB 215개사(95.6%), TCFD 201개사(89.3%) 순으로, 재무 연계형 공시 기준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 기업의 자산 규모 및 업력별 ESG 공시 상황을 비교하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가 활발하며 그 외 중소·중견기업은 공시 참여율 저조

-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의 양극화가 존재하며 ESG 공시에 대해 중소기업은 ESG 공시에 대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
 - 전체 상장기업 중 자산 규모 30조원 이상 기업의 85%, 10조~30조원 기업의 72%, 2조~10조원의 58% 기업이 ESG 공시를 수행
 - 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업 수가 553개로 가장 많지만, ESG 공시율은 9%(48개사)에 불과
- 그러나 기업의 업력 구간별 ESG 공시 비율을 보면 신생기업의 ESG 공시 비율이 53.4%로 가장 높으며 업력이 길수록 공시율이 낮아지는 감소 추세
 - 최근 설립된 상장사들은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ESG 기준을 내재화하거나, 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ESG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
 - 업력 10~30년 구간도 평균(27.5%)을 상회하며 활발한 공시를 보여주나 30~70년 사이의 기업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공시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보수적
 - 업력이 오래되었음에도 자산 규모가 2조 원에 미달하는 제조 기업들이 ESG 공시의 가장 큰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큼¹⁹⁾



주: 주권상장법인('25년 신규 상장법인, 투자회사 등 제외)에 한함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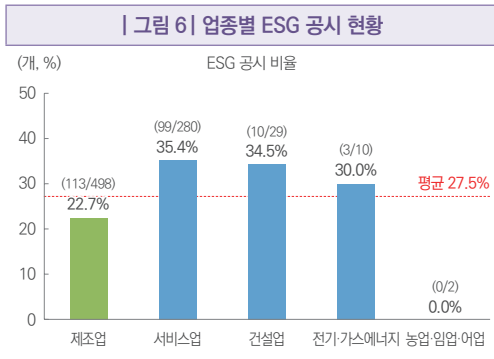
주: 업력=설립년월부터 2026년3월까지, 업력구간(10년)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업종별 ESG 공시 참여도와 배출량 산정 현황을 종합하면, 제조업의 공시 참여율이 평균보다 낮고 공급망 탄소 배출(Scope 3) 및 연결 기준의 데이터 관리 역량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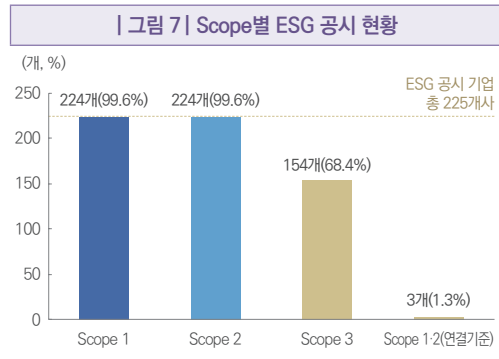
- 225개 기업 중 국내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공시율이 평균보다 낮으며, 업종에 따라 ESG 공시의 양극화가 존재
 - 서비스업(금융, 정보통신, 도·소매 등 11개 업종 포함)이 35.4%로 가장 높고, KOSPI 전체 평균(27.5%)을 상회
 - 건설업(34.5%), 에너지 분야(30.0%)도 상대적으로 공시에 적극적
 - 반면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498개사)은 22.7%로 평균 이하로 낮은편

19) 업력 평균(44.6년) 이상이면서 자산 2조 원 미만인 제조업체 233개사 중 95.7%(223개사)가 ESG 미공시

- Scope별 공시 현황을 비교하면, 기본적인 탄소 배출 산정 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 글로벌 규제의 핵심인 ‘공급망 탄소 배출(Scope 3)’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 공시’는 미비
 - ESG공시 기업 225개사 중 224개사가 직접 배출(Scope 1: 기업의 설비·공정상 배출)과 간접 배출(Scope 2: 외부 구매 전력·열 사용에 따른 배출) 정보를 공개
 - 공급망 전체(원자재 생산, 물류, 폐기 등)의 배출까지 포함하는 Scope 3의 경우 154개사 (68.4%)만이 공시하며 공시 내용도 국제 기준에 미흡²⁰⁾
 - 사회사나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 산정은 단 3개사만 수행하고 있어, 글로벌 공시 표준(ISSB 등)과 비교 할 때 연결기준 공시 범위가 제한적인 수준



주: KOSPI 819개사중 225사, 2025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KOSPI 819개사중 225사, 2025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관련 입법 동향을 보면, 제20~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2건 발의되었으며, 모두 임기만료폐기 또는 위원회 계류중

- 제20대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 논의가 제21대의 제도화 검토를 거쳐, 제22대에는 ‘밸류업’ 및 ‘법정 의무공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고도화·구체화됨
 - 현재 정부가 발표한 ESG 공시 안(’26.2월)에서 공시 의무, 시기, 면책 조항, 인증 의무 및 인증인 책임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음

| 표 3 | 제20~22대 국회 ESG공시 관련 입법 동향

분류	대표발의 의원	핵심 입법 목적 및 내용 요약	상태
제20대(4건)	홍일표, 이연주, 전재수, 유동수	• CSR 개념 도입: 사회적 책임(CSR) 개념 도입, S(사회) 영역 공시 확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초 마련	임기만료폐기
제21대(2건)	유익동, 이용우	• 공시 제도화 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의무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임기만료폐기
제22대(6건)	김남근, 강훈식, 박상혁(2), 안도걸, 민병덕	• 밸류업 및 강제공시 관련: ESG 정보의 사업보고서 법정 공시, 공급망 관리(Scope 3)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 의무화	소관위 계류중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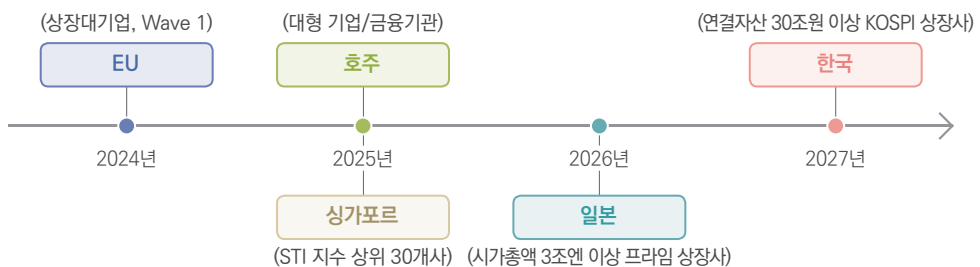
20) 한국거래소의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 결과, 15개 Scope 3 카테고리 중 평균 8.1개 공시, 2026.1.5.

다. ESG 공시 관련 주요 쟁점 및 과제

■ ESG 공시 '시기' 및 의무화 공시 '적용 대상'의 적절성 여부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흐름은 한국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나, 국내 ESG 공시 제도는 경쟁국에 비해 도입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 또한 축소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26.2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의 KOSPI 상장사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 2021년 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글로벌 공시기준이 미확립('23.6월 이후 확정)된 상황과 주요국의 공시도입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도입 속도를 조절
 - 한국의 의무화 시점은 주요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나 일본에 비해 1~2년 정도 늦은 상황이고 범위도 축소되어 기관투자자·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엔 역부족²¹⁾

| 그림 8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흐름



주: FY(Fiscal Year) 회계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0조 자산 기준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 기업이 금융·보험업 위주로 되어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의 참여가 낮아 실질적인 전환 리스크²²⁾ 반영에 한계 존재
 - 싱가포르의 경우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30조원 기준은 대상 기업이 약 59개사에 불과²³⁾
 - 특히 이 중 금융·보험업이 32개사(54%)²⁴⁾로 절반을 차지하여,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전환 리스크가 의무화 대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공시 로드맵상 FY27의 제조 기업수는 16개(3%), FY28에는 36개(7%)로 전체 제조 기업의 소수만 참여, 산업의 전환 리스크 반영이라는 ESG 공시 목적 달성에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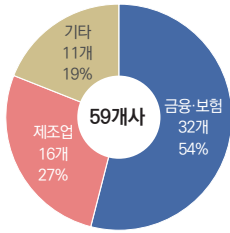
21) OECD,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5」, OECD Publishing, Paris, 2025.10.6.

22)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 기후변화의 물리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급격한 정책 전환 시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

23) 분석자료는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26.4월)인 '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대상 KOSPI 상장 819개사이며, 재무자료는 한국거래소에 실적이 발표된 '25.11~12월 결산법인의 재무데이터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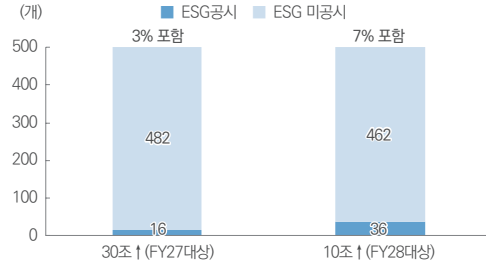
24) 금융·보험업 32개사를 업종 소분류로 비교시, '기타금융업'은 18개사,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5개사, '은행 및 저축기관' 2개사, '보험업'은 7개사가 있음. 다만 '기타금융업' 18개사 중 지주회사는 SK, HD현대, CJ, GS, LG, 두산, SK스퀘어가 있음

| 그림 9 | 현행 기준(30조 이상) 의무공시 대상 업종 분류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림 10 | 제조업 ESG 공시 비율(FY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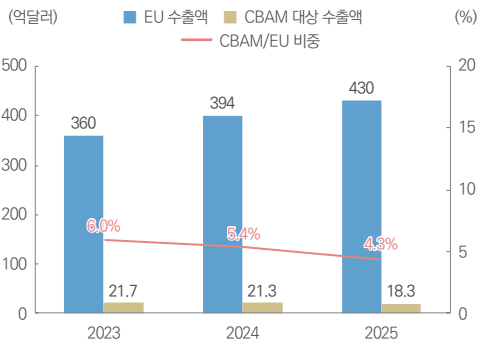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글로벌 탄소 규제가 무역 장벽화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여부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6.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부담이 가중될 전망
 - KOSPI 상장사 819개의 전체 EU 수출액 중 CBAM 적용 수출의 비중은 약 4~6%이며, CBAM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액은 연간 18~22억달러(2.4~3.0조원) 수준
 - 그러나 CBAM 대상인 기업의 48.1%(65개사)만이 ESG 공시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의무화 기준인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은 17개사에 불과(미공시 기업은 모두 30조원 미만)
 - CBAM 대상이면서 30조 미만인 70개사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환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30조 기준)으로는 관리되지 않는 상태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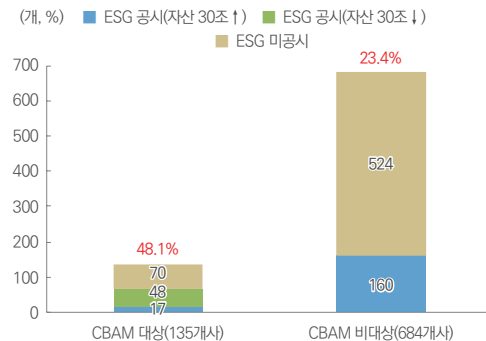
| 그림 11 | EU 수출액 대비 CBAM 관련 수출 비중



주: KOSPI 819개사, 2025년 기준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림 12 | CBAM 대상 여부 및 자산 기준 ESG 공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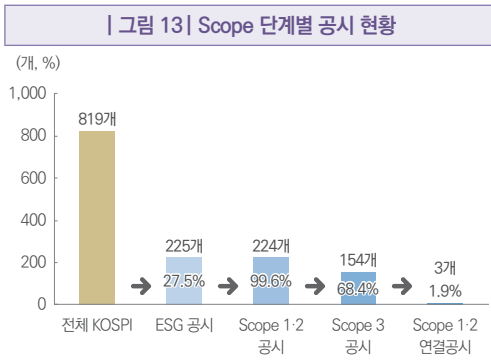
주: KOSPI 819개사, 2025년 기준

자료: 무역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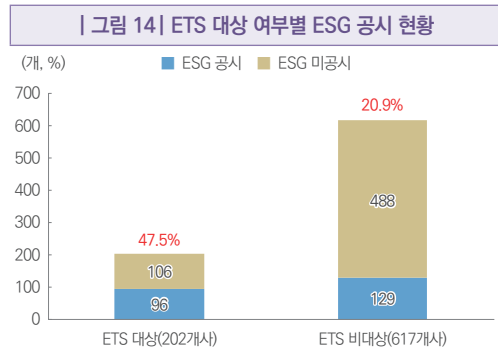
25) CBAM 대상 기업이 따르는 기준인 ESRs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나, 2024년 5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와 EFRAG(유럽 기업보고 자문그룹)는 두 공시 기준 간의 높은 정합성을 공식화하며,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를 공동 발표, IFRS Foundation & EFRAG, "Interoperability Guidance: ESRs and ISSB Standards," May 2, 2024.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4/05/efrag-ifrs-foundation-interoperability-guidance/>. ISSB 역시 IFRS AC 안전문서를 통해, "Targeted outcome - a company could provide a single report that meets both sets of requirements" 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목표를 밝힘(IFRS AC Agenda paper AC5_Update on the ISSB's activities, 2023.4.)

• 글로벌 기준 대비 정부안의 Scope 3 유예 기간은 길고 종속회사 범위도 협소

- 주요국은 Scope 3 유예 1~3년 + Safe Harbor²⁶⁾ 적용을 표준으로 채택하지만, 한국의 3년 유예는 국제 기준(ISSB 1년)²⁷⁾보다 길고 Safe Harbor 범위가 불명확
- 현재 ESG 공시 기업 중 Scope 3 공개 기업은 154개사(68.4%)이지만, 이미 202개의 기업이 ETS(배출권거래제)²⁸⁾에 등록되어 Scope 관련 자료를 보유



주: KOSPI 819개사, 2025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KOSPI 819개사, 2025년 기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또한 ESG 공시 로드맵에 따라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면제하면,²⁹⁾ 전체 종속기업 중 평균 1~2개의 종속기업만 FY27의 ESG 공시 대상
- FY27에 적용받는 자산 30조 이상 59개사('25년 재무자료 기준)의 기업별 평균 종속기업 수는 약 150개이며, 주요 종속기업(자산규모 750억 이상 등)은 평균 40여 개임³⁰⁾

| 표 4 | ESG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

면제 기준	종속기업 범위	평균(중앙값)(개)
연결자산 기준 10% 미만 면제	연결자산 기준 10% 이상	1.3(1.0)
연결매출 기준 10% 미만 면제	연결매출 기준 10% 이상	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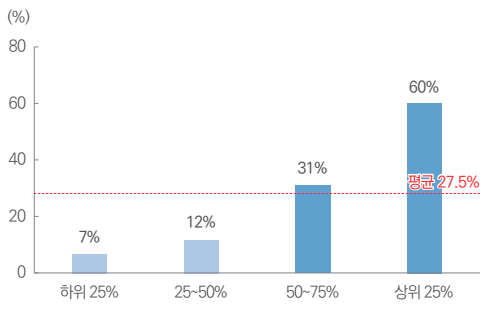
주: 데이터 정밀도 제고를 위해 자산 정보는 사업보고서 내 주요 종속기업(자산 750억 원 이상) 공시 자료와 교차 검증을 수행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6)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미래 예측 정보 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27) ISSB는 Scope 3 관련하여 최초 적용 첫해에만 미공시를 허용하는 전환 구제(transition relief)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자료수집의 복잡성을 인정한 조치, IFRS Foundation/ISSB,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3. 6.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 2026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되었으며 유상할당 확대 및 NDC 달성을 위한 규제 강화가 특징
 29) ESG 공시 로드맵(안): “공시 첫 해에 한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의 종속회사 공시의무 면제(공시대상 확대시에도 동일 적용) [예]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
 30) 종속기업의 자산·매출 정보는 연결감사보고서 주석을 토대로 추출, 한국회계기준원 제출자료, 2026.4.

■ 외국인·기관투자자의 ESG 공시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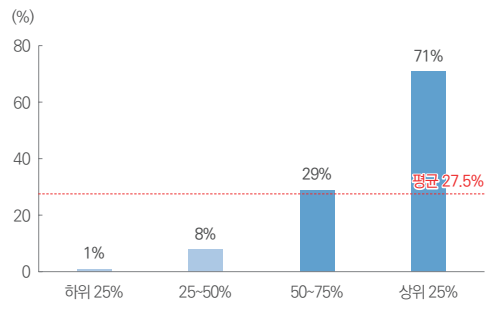
- 국제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국에서는 이미 ESG 공시와 인증을 법제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는 ESG 정보 공시 여부 및 신뢰성을 핵심투자 요소로 고려
 - 외국인지분율 상위 25% 기업의 ESG 공시율(60%)은 하위 25%(7%) 대비 8배 이상 높아, 외국인지분율과 ESG 공시 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국민연금(NPS) 지분율 상위 25% 기업의 ESG 공시율(71%)은 하위 25%(1%) 대비 크게 높아, NPS 지분율과 ESG 공시 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15 | 외국인지분율 분위별 ESG 공시율



주: 중앙값 기준, ***p<0.001(t-test)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림 16 | 국민연금 투자 분위별 ESG 공시율



주: 중앙값 기준, ***p<0.001(t-test)
 자료: 국민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무공시 제도처럼 ESG 공시의 공시 → 인증 →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재무제표와 동일 위치에 동시 공시함으로써 정보의 연계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³¹⁾
 -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방안 마련
 - 재무제표의 연결 범위와 동일하게 지속가능성 공시 범위를 유지하여 정보의 누락 및 왜곡을 방지해야 함

| 표 5 | ESG 공시의 공시→인증→평가 체계를 구축

구분	공시	인증	평가
의미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도록 함	정보의 정확성을 제3자가 검증	정보의 분석을 통해 활용도를 높임
재무정보	정기공시, 수시공시 -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자본시장법」)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 외부감사보고서(「외감법」)	증권사의 주가 전망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자본시장법」 등)
지속가능성 정보	ESG 공시 의무화	ESG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 의무화	ESG 평가회사의 ESG 평가, 등급

자료: 국회 정책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 방안」, 주최: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26.3.4.

31) 특히 향후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따른 소비자 소송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기업들의 공시역량 강화는 중요, 국회 정부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ESG 공시 및 인증 의무화」,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521호) 검토보고, 2025.2.

3 ESG 공시 결정요인 분석

■ 2025년 기준 KOSPI 상장기업의 ESG 공시 여부에 따른 그룹별 특징을 비교할 때, 투자유인 효과, 리스크관리 및 업종·업력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남³²⁾

- 투자유인 효과: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신뢰성 제고
 - 외국인 지분율: 공시 기업 18.7% vs 미공시 7.4% (약 2.5배)
 - 국민연금 보유액: 공시 5,320억원 vs 미공시 304억원으로 차이
 - 기업가치(PBR): 공시 1.41 vs 미공시 1.09
- 리스크 관리: 공시가 기업의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반영
 - ESG 리스크 점수: 공시 24.6점 vs 미공시 30.4점 (점수 낮을수록 우수)
 - 미공시 기업일수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건수가 더 많음(10.8건 vs 15.6건)
 - 제조업 미공시 기업의 리스크 점수(31.3점)가 가장 높고 ROE(0.4%)도 가장 낮음
- 업종·업력별 차이: 신생기업일수록 높은 공시율
 - 기업연령이 낮을수록 ESG 공시 참여 적극적 (업력 짧을수록 공시율 높음)
 - 전통 제조기업(평균 업력 47.5년)은 공시 참여 소극적
 - 제조업 미공시 기업은 수익성·기업가치 모두 하위 → 자본시장 유인 부족
- 재무 구조
 - 공시 기업의 부채비율(245%)이 미공시(131%)보다 높음 → 대기업·금융업 포함 효과로 해석

표 6 | ESG 공시 여부에 따른 기업 특성 비교(t-test를 활용한 집단 간 차이 분석)

분석 변수	전체 업종		제조업		통계적 유의성 및 해석
	ESG 공시	미공시	ESG 공시	미공시	
외국인 지분율	18.70%	7.40%	17.90%	7.10%	[p < 0.01] 공시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2.5배 높음. 글로벌 투자자의 주요 고려 요건 중 하나
국민연금 보유액	5,320억	304억	7,470억	266억	[p < 0.01]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공시 기업에 집중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건수	10.8건	15.6건	11.9건	14.8건	[p < 0.01] 미공시 기업에서 의결권 행사 (반대 등)가 더 많음. 지배구조 리스크 가능성 시사
ESG 리스크 점수	24.6점	30.4점	25.5점	31.3점	[p < 0.01] 점수가 낮을수록 우수. 공시 기업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이 뛰어남
수익성(ROE)	5.20%	1.30%	4.80%	0.40%	[p < 0.01] 공시를 수행하는 우량 기업의 수익성이 높음
기업가치(PBR)	1.41	1.09	1.46	1.16	[p < 0.1] ESG 공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
기업 연령(업력)	38.7년	47.1년	36.8년	47.5년	[p < 0.01] 업력이 짧을수록 공시에 적극적이며, 전통 제조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부채비율	245%	131%	126%	107%	[p < 0.01] 공시 기업(주로 대기업)의 자본 구조가 더 복잡하고 레버리지 활용도가 높음(금융업 포함 효과)

주: t-test는 서로 독립된 두 집단 간의 특정 변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분석 방법
 자료: 한국거래소, 국민연금, 모닝스타, NICE BizLINE 등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2) 다만, ESG 공시 역량이 있는 대기업(시총, 자산규모가 큰)이 외국인 지분율, 국민연금 지분율도 높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

■ 국내 ESG 공시 의무화³³⁾에 앞서 현재 상장기업의 ESG 공시 결정요인을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Stepwise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여 ESG 공시 관련 현황을 점검

• 분석개요

- KOSPI 상장기업 대상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용
- 최적 모형⁽⁴⁾ 기준 McFadden R²=0.450으로 설명력 양호
- 결정요인은 자산 규모 → NPS 보유주식액 → ETS 대상 여부 → 기업업력 순으로 유의미

• 결과 ① 자산 규모가 가장 강력한 촉진 요인으로 나타남³⁴⁾

- 4개 모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의미한 양(+)의 효과(10.427~3.320)³⁵⁾
- 규모가 클수록 ESG 공시 확률 현저히 증가
- FY27 의무화 대상(자산 30조↑) 59개사 중 50개사가 이미 자율 공시 중

• 결과 ② 국민연금(NPS) 투자와 외국인 투자 비교 시 강한 기관투자자 효과

- 외국인 지분율보다 NPS 보유주식액의 영향이 더 강한 결정요인으로 확인(3.522~3.332)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기업의 ESG 공시 유인에 실질적으로 작용

• 결과 ③ 탄소규제(ETS·CBAM) 노출의 영향 유의미

- ETS 대상 여부가 ESG 공시 확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1.272)
- CBAM 대상 여부도 동일한 방향의 효과 확인(1.200)
- 탄소규제에 직접 노출된 기업일수록 리스크 관리 차원의 ESG 공시 참여 적극적

• 결과 ④ 기업 특성 중 업력은 일관된 역방향 효과를 나타냄

- 전 모형에서 일관되게 역방향 유의(0.607~0.710) → 오래될수록 공시 확률 감소
- 미공시 기업 평균 업력 47.5년 vs 공시 기업 36.8년으로 뚜렷한 차이
- 자산 규모가 작고 업력이 긴 제조기업이 ESG 공시의 최대 사각지대임을 실증적으로 확인

•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

- 본 분석 결과는 Huang et al. (2025)³⁶⁾, ECGI(2024)³⁷⁾ 등 기존 해외 문헌의 결과와 일치
- ESG 공시 의무화 기준을 자산 규모 단일 기준에서 ETS·CBAM 등 기존 탄소규제 정책 대상 여부를 병행하는 복합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가능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ESG 공시 참여 유도 가능

33) 금융위원회는 '26.4월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여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KOSPI 상장사(59개사, '25년 재무자료 기준)를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

34) 국민연금(NPS) 투자와 ESG 공시의 강한 연관성에 대해 역 인과(우량 기업에 NPS가 집중)와 선택편의 문제가 잠재할 경우가 있음. 추가로 NPS 투자와 ESG 공시의 인과관계에 대해 내생성을 교정 후 검증(IVProbit, KOSPI200로 proxy)한 결과 NPS 효과가 ESG 공시에 일관되게 유의

35) 표의 수치는 오즈비(Odds Ratio, $OR = \exp(\beta)$)임. OR>1이면 공시 확률 증가, OR<1이면 감소를 의미

36) Huang, J., Han, F., & Li, Y., 'The impact of institutional investors' ESG concerns on corporate ESG disclosure: Evidence from site visits', Finance Research Letters, vol. 76, 2025.

37) ECGI, 'Institutional Investors and ESG Preferences', Law Working Paper NO 631/2022 (March 2024 update)

| 표 7 | ESG 공시 결정요인(단계적 로지스틱 회귀 결과)

독립변수	① 기본모형	② 외국인지분율	③ 투자액	④ 탄소규제
기업 특성(규모·재무·업종 통제)				
log(자산총계)	10.427***	9.596***	3.703***	3.320***
업력(년)	0.607***	0.617***	0.710**	0.702**
부채비율(%)	0.909	0.939	1.282	1.258
금융업 더미	0.814	0.806	0.839	0.895
제조업 더미	1.109	1.103	1.027	0.887
기관투자자 압력				
외국인지분율(%)	-	1.168	0.967	0.980
ln(NPS보유주식액평균)	-	-	3.522***	3.332***
탄소규제 노출				
ETS 대상여부	-	-	-	1.272*
CBAM 대상여부	-	-	-	1.200
모형 적합도				
표본 수(n)	795	795	783	783
McFadden R ²	0.416	0.418	0.442	0.450 ★
ΔR ² (기본모형 대비)	기준	0.002	+0.026 ▲	+0.034 ▲

주: ***p<0.001, **p<0.01, *p<0.05; 미표기=비유의(p≥0.05). ④ 모형이 McFadden R²=0.450으로 최적
 자료: 한국거래소, 국민연금, 모닝스타, NICE BizLINE 등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BOX 3] 분석 모형

■ ESG 공시를 종속변수로 고려, 다중공선성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Stepwise Logistic Regression)’ 선택

- 로지스틱 회귀는 로그 오즈(log-odds)를 선형으로 모형화하여 예측 확률을 0~1로 제한하고, 각 변수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단순히 변수를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단계적(Stepwise)으로 투입한 결과를 비교하여 각 요인 그룹의 독립적 기여도를 비교³⁸⁾
 - Desai, R., & Raval, A. (2022) 등도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Stepwise Logit)를 사용하여 탄소 공시의 결정요인을 분석³⁹⁾
 - 모형별로 기업 특성, 외국인 투자, 기관투자 및 탄소규제에 대한 영향 비교
 - 분석 모형: $\text{Logit}(\text{ESG_it}) = \alpha + \beta_1 \log(\text{자산}) + \beta_2 \text{업력} + \beta_3 \text{부채비율} + \beta_4 \text{금융업} + \beta_5 \text{제조업} + \beta_6 \text{외국인지분율} + \beta_7 \ln(\text{NPS투자액평균}) + \beta_8 \text{ETS} + \beta_9 \text{CBAM} + \epsilon$

각 분석 모형의 차이점

모형	추가 변수	핵심 질문	McF.R ²
①	규모·재무·업종만	“기업 특성만으로 ESG 공시를 얼마나 설명하는가?”	0.416
②	외국인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압력이 기업 특성과 독립적으로 기여하는가?”	0.418 → +0.002
③	ln(NPS투자액)	“국민연금 관여가 독립적 설명력을 가지는가?”	0.442 → +0.024
④	ETS·CBAM	“탄소규제 노출이 추가적 공시 유인으로 작용하는가?”	0.450 → +0.008

- 상장폐지 기업 및 이상치를 제외한 KOSPI 상장사 801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분석 대상 중 약 27.7%의 기업만이 ESG 공시를 이행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n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ESG 공시여부(더미)	801	0.277	0.000	0.448	0.000	1.000
ETS 대상여부(더미)	801	0.247	0.000	0.432	0.000	1.000
CBAM 대상여부(더미)	801	0.166	0.000	0.372	0.000	1.000
ln(자산총계)	801	27.861	27.540	1.855	23.113	34.311
업력(년)	801	44.740	48.750	21.800	1.330	128.500
외국인지분율(%)	801	10.570	5.310	13.310	0.000	100.000
부채비율(%)	795	163.100	94.600	238.400	1.450	1,491
ROE(%)	795	2.378	4.509	18.830	-190.500	126.000
NPS 보유주식액4년평균(억원)	801	1.693	36,400	11,694	0.000	304,601
ln(NPS 보유주식액 평균)	789	22.217	22.062	3.258	14.590	31.033
NPS 지분율4년평균(%)	801	0.117	0.003	0.802	0.000	20.800

주: 1. 상장폐지 18개사 제거 후 801개사 기준, NPS 보유주식액은 2021~2024년 평균값

2. 부채비율 2,000% 초과·ROE ±200% 초과 이상치 제거

38) McFadden, D., 「Quantitative Methods for Analyzing Travel Behaviour of Individuals: Some Recent Developments」, In D. Hensher & P. Stopher (Eds.), Behavioural Travel Modelling,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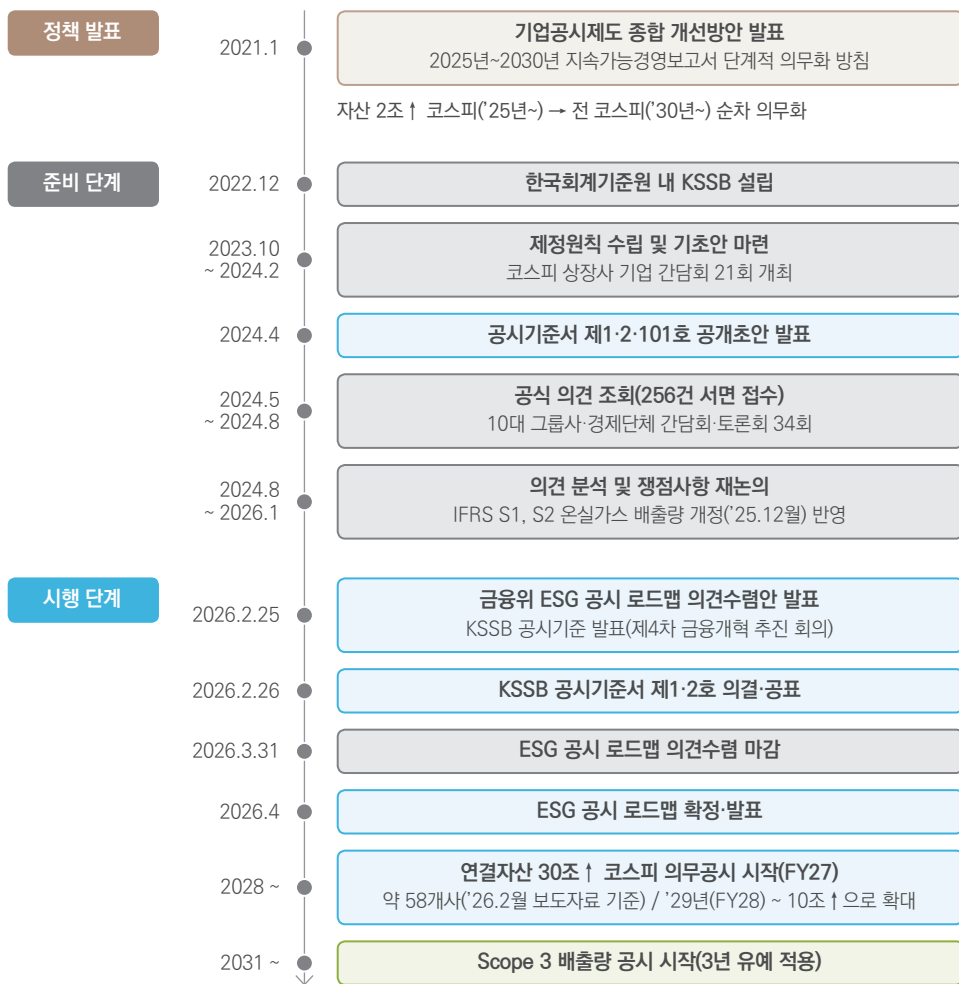
39) Desai, R., & Raval, A. 「Determinants of corporate carbon disclosure: A step towards sustainability reporting」, Borsa Istanbul Review, vol. 22, no. 5, 2022.

4 요약 및 시사점

■ 국내 ESG 공시제도는 2026년 4월 확정되어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KOSPI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로 추진될 예정

- 2021년 도입 계획 발표 이후 5년 만에 재추진되었으며, 공시 대상 및 시기 기준은 조정됨

| 그림 17 | 국내 ESG 공시 제도화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ESG 공시 현황 분석 결과, 양적 확대에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전환리스크에 노출

- ESG 공시 상장사는 2021년 78개사 → 2025년 225개사(27.5%)로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8.7%)·제조업(22.7%)은 전체 평균(27.5%)을 하회
 - 업력이 긴 제조기업일수록 ESG 공시 참여율 저조(미공시 평균 47.5년 vs 공시 36.8년)
- ESG 공시 결정요인은 자산 규모·국민연금 투자액·ETS 대상 여부 순으로 유의미한 촉진 요인으로 확인
 - 자산 규모가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며, 국민연금 투자 영향이 강하게 나타남
- FY27 의무화 대상(30조원 이상 59개사, '25년 재무자료 기준)의 85%는 이미 공시 중이나, Scope 3 등 탄소배출 정보 공시에는 한계 존재
 - CBAM 대상이면서 자산 30조원 미만인 중견 제조기업 70개사는 전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의무화 사각지대에 해당(그림 12 참조)

■ ESG 공시 의무화는 단순한 공시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인프라

- ESG 공시 기업의 PBR(1.41)이 미공시 기업(1.09)을 상회하는 등, 공시 이행이 자본시장 장기 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표 6 참조)
 -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신뢰성·비교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⁴⁰⁾
- KOSPI 상장사의 CBAM 대상 수출액은 연간 18~22억달러(2.4~3.0조원) 수준으로, 관계 기업들은 이미 탄소배출 정보를 보유(그림 11 참조)
 -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ESG 공시가 CBAM·ETS 등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한 기업의 전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⁴¹⁾
- 다만, 대기업만의 대응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제반 생태계의 동반 준비가 전제되어야 하는 구조적 과제 존재⁴²⁾
 - Scope 3 산정 과정의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이행비용 경감 및 공공 측정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검토가 병행될 필요⁴³⁾

40) Ilhan, E., Krueger, P., Sautner, Z., & Starks, L. T., 「Climate Risk Disclosure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36, no. 7, 2023.

41)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SRD and CBAM reporting」, 2024.

42)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ESG 공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공시대응 능력이 있는 공급망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구조 실정에 맞는 Best Practice(공시표준)를 만들어 운용하고 추후 하위기업의 공시표준을 확대해주는 것이 효율적임. 이런 배경으로 2026년 3월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지원기관과 중소기업 ESG 합동 지원망을 구축하여, 교육부터 컨설팅, 공시 대응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발표,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6-30) 발표」, 보도자료, 2026.3.25.

43) Scope 3 배출량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을 포괄하는 특성상 측정·보고·검증(MRV)의 난도가 매우 높음. 국내 기업 대상 설문 조사에서 Scope 3 산정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협력업체 데이터 측정·취합의 어려움(63.0%)과 구체적 세부 가이드라인의 미비(60.0%)가 지적되었음(설성희 외,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제15권 제6호, pp. 1063~1072, 2024.12.). 특히 중소기업은 관련 재정적·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이행 부담이 가중되므로 업종별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 및 공공 배출계수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주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Klaver, F. et al., Challenges and Solutions in Measuring and Reporting Scope 3 Emissions, Deloitte Risk Advisory B.V., December 2023).

■ **공시 대상·범위·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재무공시와 통합된 ESG 공시 체계 법제화 고려**

- (공시 대상 다변화) 현행 연결자산 30조원 범위를 하향 조정하고, 자산 단일 기준에 ETS 등록·CBAM 대상 여부를 병행하는 복합 기준 도입
 - 탄소 전환 리스크가 높은 자산 30조 미만 제조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사각지대 해소
- (Safe Harbor·이행지원) 업력 30~70년 제조기업 대상 Safe Harbor 도입으로 성실 공시에 대한 법적 부담 경감
 - Scope 3⁴⁴⁾ 배출량 산정 인프라 지원·파일럿 테스트 운영 및 ISSB 기반 KSSB⁴⁵⁾ 전환 교육·가이드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 (통합 체계 구축) 공시 → 인증 → 평가 3단계 체계를 재무공시와 동일 위치·동시 공시로 구축하여 정보의 연계성·신뢰성 확보
 - 재무제표 연결 범위와 지속가능성 공시 범위를 일치시켜 정보 누락·왜곡 방지
- (국민연금 스튜어디스 강화)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대한 ESG 공시 관련 수탁자 책임활동 확대⁴⁶⁾
 - 국민연금 절대 투자 규모가 클수록 ESG 공시 확률 약 3.3배 높게 나타나, 기업의 자발적 ESG 공시 참여 유도 필요(표 7 ESG 공시 결정요인 분석 참조)
- (입법적 기초 마련)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ESG 공시제도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 법정공시화·공시 범위, Safe Harbor 신설, 제3자 인증 의무화, 인증인 배상책임 등에 대한 입법화 추진에 대한 제안 고려⁴⁷⁾
 - 현재 정부가 발표한 ESG공시안('26.2월)에 따르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발표('26.4월 예정)시 법정공시 전환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며, 법정공시 전환시 공시 의무, 시기, 면책 조항, 인증 의무 및 인증인 책임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고려할 필요

44) Scope3 유예기간 동안 가치사슬내 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예측 추정, 제3자 제공 정보에 대해서는 부실공시에 대한 고의가 없는 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책임 부담 완화가 병행 추진될 필요

45) 글로벌 기준인 ISSB로의 전환 준비가 미흡, 2025년 기준 ESG 공시 기업의 KSSB 활용률은 20.9%(477개사)

한국회계기준원의 'IFRS S1, S2와 공시기준서 제1호, 제2호 주요 내용 비교		
구분	IFRS S1·S2(ISSB 국제 기준)	한국 공시기준서(제1, 2호)
핵심 기초	엄격한 글로벌 표준 적용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부담 완화 고려
공시 주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기후 관련 정보 우선(그 외 선택)
산업별 지표	공시 의무	공시 선택
Scope 3 유예	1년	3년
SASB/산업지침	적용 고려(준의무)	참고 가능(자율)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6)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2025.3.1.시행), 제13조, 제14조에 기구정되어 있음. 현재 배당, 기후위기, 법령위반 등 포괄적 중점관리사안만 명문화하고 하위 세부 내용(자사주 소각, 배출량 공시, 횡령/배임 등)은 기금운용본부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좀더 확대할 필요

47) 제22대 국회의원 발의안 6건과 이만경·정순섭·정준혁,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 방안」, Business, Finance & Law 제12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3. 등 참조

naboo Industry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26년 4월호 통권 제81호

발행일 2026년 4월 23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7-001585-06
ISSN	3058-9851

